성숙한 교인을 위한 교회 교육 연구

LAY LEADERSHIP TRAINING THROUGH EFFECTIVE EDUCATION PROGRAMS

By

Chung, Chang Eun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Glen Burnie, Maryland

2010

ABSTRACT

LAY LEADERSHIP TRAINING THROUGH EFFECTIVE EDUCATION PROGRAMS

By

Chung, Chang Eun

There will be various answers to the question what the present greatest challenges of Churches of Korea are. Currently Korean churches are worrying that the growth of churches has stopped and concern about their slowdown. However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more urgent problem than this is for churches to get rid of church-growth-convince state of pastors, success-convince state, and state of mimicking large churches.

Although living in 140 different countries and nations, those Korean immigrants that add up to nearly 8 million, building Korean churches wherever they go, wherever they live, is a very meaningful and a desirable action.

In 1903, the first Korean immigrants who stepped on the land of America started their immigrant lives by building a church, and formed Korean society. The fact that new life has started outside our country gives us important implications.

It is also not easy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the challenges are to be faced for the immigrant Korean churches that started in such ways. It's not a persuasion to be troubled about this question. However, answering that question would pretty much be the same as solving the problems. The problem is that churches are excessively depending on questions such as: how to grow in size, how to buy its own chapel, how to make the church big, or how to become a successful pastor.

I believe that churches are to supposed to have their objectives on making disciples, as Jesus taught us, so that they can produce disciples that would keep all the commands. Basically it's to produce a true person, a true disciple of Christ, and having a

person to build a mature person. This is what is urgent and important more than any other things for churches. When living in the age where society is insufficient of mature people, it is important for churches to provide an answer of what it means and how to live as a true person.

I first analyzed what Cassirer and Heidegger, who valued relationships with God, had said about human relationships, what Freud and Jung thought of human aspects, and who, both theologians Paul Tillich and Karl Barth, had indicated as human. However, since it’s a priority to know what the Bible says about human being, I observed what the start of human being, built in likeness of God, was like, and typically what Abraham’s humanity’s aspect was. To find about what Paul had said in the New Testament about a mature person, I thought of how, knowing and believing in God’s son would unite as one and make a person perfect, shown in Ephesians chapter 4, is related with becoming a mature person. Especially looking at a man shown at Sermon on the Mount, I observed what Jesus put forward as right humanity.

A mature person is a person who takes full responsibility on the mission of light and salt, living in Christ, with Christ, and for Christ, when he has earned salvation through the blood of the cross, said in the Bible. The question is about how churches would train, raise, and produce the spiritually mature saints. For an answer, I put effort on trying to explain about laymen, who happen to subjects of churches, on what their role is, on who they are, and why they happen to be church subjects. And so I recognized that it is most important task for churches to train and raise them so they’ll become mature members enough to serve their church, and then become mature people so they’ll serve the world. To influence every church member to become mature, churches created a system called 『Lay Training center』. In modern churches, there are too many kinds of programs. It’s enough to describe as a flood of programs. However these programs, as

said earlier, are focused on church growth only. Maybe it's an exaggeration, but their goals might be centered on locking church members into their church. True church programs should have their focus on the Bible to raise spiritual maturity level in people's hearts. Currently, lots and lots of programs are being made however, instead of having their focus on the Bible, their concentrations are adjusted on mostly physical success and church-growth, that it now seems that those are unable to neither find the real appearance of the church nor find the right position.

In circumstances of an immigrant church, co-performing church establishment and laymen's training is not an easy job. However, when reflecting the reviews of those that have gotten trained as laymen, where everyone can see that faith and humanity become mature, then the immigrant churches will know that this is the way that they should go.

Although no physical difference can be seen, if there are quality changes appearing in a church, and if its members become mature in faith, then the quantitative growth that follows should be considered a blessing that follows. When an objective is not targeted to blessing, but to obedience to God's words, then the blessing would come as a bonus.

Ahead of retirement, I hope that junior pastors of immigrant churches would understand that physical success is not the real church growth, but realize that pastor's true duty is to produce true people. Wish this little writing would be a lot of help to pastors of immigrant churches.

ACKNOWLEDGMENT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생각나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다는 사실임을 경험하면서 지나온 세월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목회를 위한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일념 하에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에 입학을 하고 먼 거리를 다니며 나름대로 정진하다가, 목회학박사학위의 난무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절이 닥아 온다는 이유로 끝을 내지 못한 채 지나온 세월이 퍽으나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에 다시 공부의 마침을 표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NYTS 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 간 이민목회의 긴 시간들이 허비한 시간들이 아니라 소중하고 귀하며 아름답고 보람이 함께 하는 시간들이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된 것도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이 논문은 전적으로 백창건 교수의 격려와 협력 그리고 용기를 심어준 은총의 소산물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문을 쓰고 즐기던 시절이 아득한데도, 그리움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었을 뿐 아니라 지도와 편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종이 지난 한 교회를 30년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로 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민족제단의 제직들과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채영 장로님과 김정숙 장로님, 이 공부를 시작하도록 시동을 걸어주신, 민족장로교회의 첫 번째 평신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고 김봉오 장로님의 기도와 협력 그리고 동역자의 아름다움은 목회 그 자체였음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김정숙 장로님은 논문의 정독과 교정 심지어 편집의 일까지 챙겨 주시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한 분은, 평생 동안을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안에서 길러주신 사랑하는 고모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시고 지난 해 11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평생의 동역자, 이민교회의 한 부분을 너무도 훌륭하게 담당해준 사랑하는 아내 수선에게 뜨겁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30년 가까이 이민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큰 딸 나래와 그 가족들. 사위 최용석 집사와 성진, 혜진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새 가정을 꾸미느라고 분주한 작은 딸 한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다고, 자랑스러운 딸들을 주신 하나님, 특별하게 잘 양육해 주심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일 뿐입니다.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면서......

2010년 5월 고풍이 있는 민족장로교회의 목사관에서

정창은

TABLE OF CONTENTS

제 1 장. 문제의 제기

민족장로교회는 1981 년 7 월 창립된 이래 주로 교회 문턱을 처음 밟는 초신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에 정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체 교회당이 없는 환경적 미비와 신앙경력의 부족 등 여건의 미비 등으로 교회 창립에 따른 안정기에 들어가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였으므로 교인 즉 평신도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사명을 다하는 신앙,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하며 성장시키는 일에 주력하지 못한 채 지나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의 신앙이 자칫 관념적이요 머리에 가득 찬 신앙으로, 또는 가슴에 담겨진 신앙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 할 수 있었다. 그것이 평신도들에게 기독교의 기초와 신앙의 초보적 단계를 심어주려는데 주력한 목회자의 목회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이제 그들의 신앙이 손과 발을 움직이며 행동하는 신앙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가 되었으며,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행동하는 신앙, 동참하는 신앙, 섬기는 신앙, 사명적 신앙, 이를 가리켜 성숙한 신앙이라 말하고 싶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민족장로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들의 생애 중 처음으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선 경험을 가진 이들이었다. 그들은 주일 낮 예배에 한번 참석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예배 시에 헌금(금액에 관계없이)만 하면 교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하는 말이 "이 교회에서는 회비를 얼마 내야 합니까?" 물어온 적이 있을 정도이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어떤 단체에 소속하는 것쯤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란 그저 모여서 예배 보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교인들이었다.

교회의 조직상 제직회를 만들고 제직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하여 제직의 사명과 책임을 역설하지만 제직이라는 직분이 하나의 제도상의 특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고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보다 본질적인 제직의 사명에 대하여는 투철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목회자는 교회를 창립한 이래 지금까지 다른 이민교회와는 다른 순수한 교회상의 추구를 위하여 노력해왔지만 나타난 현실은 기존의 다른 이민교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단지 특징을 찾는다면 다른 이민교회들처럼 분쟁, 소요가 없이 소리 없는 가운데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제 목회자는 이런 교인들을 성숙한 교인으로 성장시켜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로써의 교회의 주역들로 만들고자, 또 2 세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교육목사를 청빙하였으며, 제직회와 연구반을 동원하여 교회의 당면한 목표인 평신도를 훈련하여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의 제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양육, 훈련, 성장시켜야 함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민교회는 나름대로의 특수한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게도 된다. 구약 성서에서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 이민 객[1]으로서의 생애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들도 이민 객으로, 변두리 인생(Marginal Person)으로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한 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 시간의 예배시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므로 이들을 특별히 훈련시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기관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

[1] 창세기 12:1 이하.

또 한 가지는 이민 객으로 이 땅에 살면서 받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갈등과 적응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가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며, 또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회의 사명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을 통한 길 이외에는 없다는 결론이 민족장로교회의 결단이며 목회자의 결단인 것이다. 여기에 평신도훈련원의 목적과 사명이 있음으로 민족장로교회는 '평신도훈련원'을 개교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교회의 양적 부흥은 전적으로 질적 부흥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며, 질적 성숙함이 없이 양적 부흥만 앞세우면 교회나 교인이나 다 행함 없는 죽은 신앙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2] 주님의 명령에 순종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민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성숙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이민 객으로써 이민의 의미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며 성숙한 교인을 양성하는데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 이다.

여기에 민족장로교회의 '평신도 훈련원'은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갖는 것이며, 절대적 필요 요청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인을 성숙한 인간, 성숙한 교인으로 양육하는 일에 교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1. 교회의 설립배경

1) Baltimore 지역과 한인사회

민족장로교회가 위치한 Glen Burnie 지역은 Baltimore 동남쪽에 위치 한 작은 도시로 1988 년에 100 주년을 맞은 도시이다. 이 지역 안에 BWI 국제공항(Baltimore

[2] 마태복음 28:20.

Washington International)이 있고, 미국의 해군사관학교(Naval Academy)가 있는 고도시 Annapolis 가 남쪽으로 있으며 미국의 수도인 Washington D. C 는 약 50 분 거리에 있다.

이 지역에서의 한인사회 형성은 1970 년대 초 유학생 중심의 친목단체가 시작되었고, 한인의 이민이 시작된 1974 년 이후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Baltimore 한인사회의 시작은 국제 결혼한 군인가족을 중심한 형제와 부모초청 그리고 월남과 독일에 파견되었던 한인들이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인사회가 조직된 것은 1978 년 Baltimore 한인회가 시작이었고 곧 이어 Baltimore 한인 봉사 센타, Baltimore 실업인 협회 등이 시작되었고, 얼마 후에 Baltimore 기독교교회 협의회가 조직되었으나 현재는 Maryland 한인회, Maryland 교회협의회로 불리 우고 있다.

Baltimore 지역은 Baltimore city, Baltimore County, Anne arundel County. Howard County, Harford County 등지이나 한인회 관계자들이나 정치지향적인 사람들은 그 범위를 넓혀 Prince george county, Montgomery County, Carol county 까지 편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Baltimore 인근 지역의 한인 인구는 약 2 만에서 2 만 5 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으며 1980 년대는 한인 인구의 약 40% 정도가 Glen Burnie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었다. 이 지역의 한인인구 특징은 이민 온지 5 년 미만의 한인들이 많아 아직 이민생활에 안정되지 못한 상태라는 점으로 정부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이 대부분이었다. 또 한편은 Baltimore 북쪽의 Towson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고 보였으나, 2000 년대 후반부터는 Howard county 의 Columbia 와 Ellicott City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큰 것은 바로 이 지역 공립학교의 학군이 좋다는 것이고, 한인 교포들이 소규모 사업(corner grocery store, liquor store, deli shop, gas

station etc)중심의 직업군에서 기관과 회사, 관공서 중심의 직업군으로 바뀌면서 자연적으로 Baltimore 시내와 Washington 시내와 연결되는 지역적 위치가 고려되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는 한인 사회가 이민 1 세 중심에서 1.5 세와 2 세로 옮겨가는 경향을 잘 대변해준다고 볼 수 있다.

2) 민족장로교회의 태동

민족장로교회는 1981 년 7 월 첫 주일 Glen Burnie 지역에 있는 미국장로교단(PCUSA)인 Harundale Presbyterian church 의 교회당을 빌려 Baltimore 의 한인 교회 중 16 번째로 시작되었다. 민족장로교회는 첫째, 한국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한국민족의 교회, 둘째, 청소년과 2 세 문제의 해결을 위하는 교회, 셋째, 한국 민족의 민족정기와 민족혼을 이 땅에 심어 나가는 교회, 넷째, 정통적인 장로교회 등을 목표로, "건전한 성령운동, 뜨거운 기도운동, 참신한 말씀운동" 을 교회의 3 대 운동으로, "교회의 정통성, 신앙의 순수성, 생활의 성실성" 을 모토로 하며 목회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립된 교회이다.

목회자는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이 분쟁과 소요의 소용돌이 속에 분열되어 시작하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신앙 하에, 교회 시작을 알리는 전단을 가가호호에 발송하고, 한국 신문에 교회창립 광고를 알리면서 교회는 한 사람의 교인도, 한 장의 종이도 없이 시작되었다. 교회창립주일 첫 예배에는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2 가정(5 명)이 전부였다. 교회를 찾아 온 3 명의 성인, 2 명의 어린이, 목회자 부부, 목회자의 딸 하나 등 모두 8 명이 첫 예배의 전부였다.

그 후 교회 창립 7 주년이 되는 1988 년 3 월에는 자체 예배당(구 St. Paul Lutheran Church 이며 구입 당시에는 몰몬교 소유건물)을 마련하게 되었고, 재적 교인 400 여명으로 자라게 되었다. 새로 구입한 교회당은 빨간 벽돌로 지은

Scotland 식의 Gothic Style 의 건물로 Anne Arundel County 의 Historic Building 으로 예배실, 소예배실, 교회 사무실, 친교실과 9 개의 교실이 있는 교육관으로 되어 있으며 Glen Burnie 도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민족장로교회는 자체 예배당이 없고 교육시설의 미비로, 예배 중심의 교회로 머물러 있었으나 이제는 전 교인을 복음으로 훈련시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이민 교회의 역사가 짧고 교인들의 신앙수준들이 아직은 폭 넓게 성장하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까운 것이며, 이들을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민교회의 과제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별히 이민 객으로 신앙의 생활화를 어떻게 정착시키며 교회의 정통성과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생활의 성실성을 추구하면서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 참사람"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어 주신 사명적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으며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 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노라"[3] 는 신앙의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교인으로써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생을 의미하며, 이민사에서 Pilgrim 으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며, 사명을 가진 이민자로서의 살아가도록 하느냐 하는 중요한 사명과 책임이 이민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3] 디모데후서 4:8.

3) 한인교회의 현재 상황

민족장로교회가 지난 1981 년 7 월에 창립 당시 한인교회 수는 15 개 였으며 16 번째의[4] 교회가 민족장로교회였다. 한인 인구의 수는 크게 변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교회의 수는 2009 년 12 월 현재 90 개며, 안식교와 로마 Catholic 교회까지 합하면 94 개에[5] 이른다. 이는 한인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결과이며 교회의 창립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교회들의 분쟁과 분열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많은 한인 신학교의 난립으로 목회자의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Baltimore 최초의 한인교회는 교파를 초월한 연합교회 형태였다. 1974 년에 창립된 Baltimore 한인연합교회(Rolling Road. Baltimore County 소재. 현재 새생명 장로교회)가 최초의 교회이었다. 이 교회에서 교파 별로 교회가 나뉘기 시작하여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교회 등이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교파 별로 분열된 교회들은 교파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겪으며 다시 분열하기 시작하였는데, 장로교로 분열되어 나갔던 Baltimore 한인장로교회는 Baltimore 한인연합교회, Baltimore 시온장로교회, Baltimore 중앙장로교회, Baltimore 영락교회, Baltimore 한민교회 등등으로 분열되었고, 침례교회도 2-3 개로, 감리교회도 3-4 개로 계속 분열의 모습으로 교회는 늘어가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에서 새로 이민 오는 목회자들과 미국의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에 설립된 한인 신학교의 난립을 통한 목회자의 양산은 교회 분열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이 되고 있어 교회는 지금도 계속 생겨나는 추세에 있다.

---

[4] 순서로 볼 때, Baltimore 연합교회(필유일 목사), Baltimore 한인장로교회(김상학 목사), Baltimore 연합감리교회(조영훈 목사), Baltimore 중앙장로교회(임대훈 목사), Baltimore 시온장로교회, Baltimore 한인침례교회(김광수 목사), Baltimore 한인교회(신상휴 목사), 은혜한인교회(윤? 목사), 베들레헴침례교회(최정원 목사), 그레이스교회(김예명 목사), 벧엘교회(김상복 목사), Baltimore 제일연합감리교회(조동역 목사), 순복음 Baltimore 교회(이영규 목사), 콜럼비아한인장로교회(한희택 목사), 벨에어 한인장로교회(정활진 목사) (이상 15개 교회) 민족장로교회(16번째).

[5] 위싱턴 중앙일보 편, *한인업소록(2009)* (Washington: 중앙일보, 1998), 126-130.

2. 연구 목적과 목표

1) 성장지향이 아니라 성숙 지향적 목회의 성숙한 기독교 공동체

한국교회의 최대 문제로 등장한 것은 다름 아닌 성장 신드롬에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성장이 교회당 건물의 크기와 교인 수의 많고 적음 그리고 사역의 다양화쯤 인 것으로 인식되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이는 사회현상의 교회 유입으로 보여 지며 비뚤어지고 일그러진 사회상이 그대로 모방내지는 전수되고 있다는 아픔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장이 아니라 비만이고 비만은 곧 만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목회의 성공이 바로 물량적 성장에 있다는 잘못된 목회관도 바로 세상의 가치관에 기인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소위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성공의 대명사로 불리 우고, 출세한 목회자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회와 교회의 현실, 대형교회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잘못된 목회 방향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회철학 내지는 하나님 사역의 목회를 실종하고 있다는 현실의 안타까움 이다.

이는 신학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낸 결과라 말할 수 있고, 교회가 사회를 모방내지는 추종하는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이로 인하여 사회가 교회를 무용지물이라 인식하게 되어가고 있고, 신앙인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지성인이 많아지는 편이 사회에 더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설립하려면 무슨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며, 교회당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

안타까운 현실적인 문제는 이민교회도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 내지는 답습하고 있으며,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한국교회에서 미국의 이민교회로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이다.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의 쌍둥이 내지는 아우교회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한국에서 소위 유명하다는 목사들이나, 한국교회에서 효과를 보았다는 많은 성경공부나 경배와 찬양이나 교재나 자료들이 무작위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이단사상이나 이단에 연루된 목사나 이단과 관계된 프로그램도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유입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민교회도 점차 대형화 추세로 돌아선지 오래되었다. 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몇 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대형교회의 등장은 이민교회의 교회 질서와 목회 윤리와 목회 철학의 세속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구매력이 좋은 지역에 Super Market 이 등장하여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작은 Corner Grocery Store 를 침식해 가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군소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현실들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교인들이 소위 수평이동을 통하여 대형교회로 흡수되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교회 간의 분쟁 내지는 목회자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간의 선한 질서는 깨지고, 목회 윤리의 부재가 심화되고, 목회철학의 빈곤을 불러와 교회 안의 분쟁과 분열이 다반사가 되고, 이민교회는 이민사회에서 구심점의 역할과 등대의 사명을 해야 함에도 그 힘을 상실해가기 시작했으며, 목회자들은 소위 교인쟁탈전에 앞장서야 하며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의 물량 성장이란 목표에 목회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 현실 목회 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민교회의 수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게 되어 Baltimore 지역의 예에서 보듯 1981 년 16 개의 교회가 2009 년 90 여 개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교포들이 사는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적인 현상이라 사료되는바 2009 년도의 미국 내 이민교회의 수가 4 천에 육박하고 있다는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교회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이민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보다는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곳이 교회라는 인식을 불어 넣어주는 결과를 가져와 복음전파와 선교사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는 교회의 사명에 역행하는 크게 잘못된 결과임에 틀림없다.

목회자들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섬기는 교회를 물량적인 대형교회로 만들기만 하면,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로 둔갑 되고, 소위 유명목사가 되어 메스컴에 오르내리게 되며, Name Value 가 형성되어 많은 감투를 맡게 되어, 진정한 목회자의 길보다는 다른 일에 더 몰두하는 기현상이 한국교회 내지는 이민교회의 대형교회에 대두하고 되었다. 하나님 사역을 벗어난 인간 사역, 복음사역이 아니라 성공사역, 피의 복음의 아니라 번영의 복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예수님의 피를 팔아 번영을 산 교회와 목사들이 한국교회는 부지기수이고 이제 이민교회도 그 뒤를 추앙하며 따라가는 기이한 현실이 바로 지금이다.

이제 교회는 성장주의에서의 하루 속히 벗어나 성숙 지향주의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 성숙한 교인은 성숙한 인간지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성숙한 인간이 많아지는 사회 건설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여기에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는 지금 사람을 찾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인간, 소위 성숙한 인간을 말이다. 성숙한 인간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예수의 흔적을 들어 내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교회는 성공한 사람을 만드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이어야 하며, 교회는 참된 인간의 양성소가 되어야 한다. 이민교회는 영적 질병에 걸린 교포들을 불러 모아 질병을 치유해주는 인간병원이 되어야 하며, 이민교회는 인간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참된 인간으로 양성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한다.

2) 청교도 후예들과 한인교회

미국은 청교도들의 후예가 건설한 국가라고 말한다.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과 유대의 크리스챤 가치관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이다. 청교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대륙인 미국에 정착하였다. 청교도의 신앙이 미국의 독립선언서(1776.7.4)의 기초가 되었으며, 1787 년 미국의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미국의 건국의 조상들(Founding Fathers)은 기독교를 모든 정부 정책 결정의 도덕적 기초(moral foundation)로 삼았다. 청교도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이 뿌리이다. 그러나 경제의 번영, 문화의 발달, 힘의 성장을 통해 미국은 점점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탄을 듣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도덕적 위기에 처한 때가 지금이다. 교회마다 텅 빈 교회당이 많아지고 예배를 드리던 교회당 건물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인들이 신앙의 힘으로 살아야겠다는 영적인 힘이 고갈되고 오히려 물질 만능, 쾌락 만능, 힘의 만능 시대로 줄달음 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영적 쇠퇴, 신앙의 무용화, 자유주의 신학의 융성, 돈의 우상화, 성적인 타락을 비롯한 퇴폐적인 문화, 쾌락지상주의라는 악의 늪에 점점 깊이 빠져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문화적 Trend 는 선정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고, 폭력으로 가득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교회들도 이의 타파를 위한 노력보다는 문화에 충실하려는 노력, 물량주의의 매력에 흠뻑 젖어 드는 현상, 죄악의 도외시 내지는 악의 방조를 부추기고 있고 하나님 중심, 신앙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 현실중심, 물질중심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임을 좌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한인들에게 이민의 문호를 개방하게 해주셨고 이 땅 여기저기에 한인 이민교회들을 허락해 주셨다.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든지 한인교회의 수가 4 천 개에 육박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왜 Korean-American 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잘 먹고 잘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복 받고 살라고 이민교회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겠고 섭리 속에 주어진 사명을 찾아야 하며, 사명을 담당해야 할 역사적 의무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지주인 청교도 신앙과 도덕이 엄청나게 타락하여 위기에 놓인 이 때에 미국이 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회복과 영적 각성과 부흥, 도덕적 신뢰의 회복을 위해 Korean-American 들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순결을 지키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여 미국을 바꾸어 나가는 사명을 다해야 할 때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한인교회들이 현재의 모습처럼 물량주의를 중심한 성장지향의 교회 관과 목회 관을 벗어 버리고 성숙 지향의 교회 관으로 바꾸고 비젼과 변화의 성숙한 교인이 되어 하나님 중심, 신앙중심, 말씀중심으로 무장하여 죽어가는 미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세계 최강국으로써의 소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책임이 한인교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이는 한인교회들이 참 인간, 성숙한 인간을 양성하여 미국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 이루어 질 것이다. 이민교회는 시급하게 성숙한 교인을 훈련시키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제는 세상 적이며 물량적인 성장지향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의 성숙지향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3) 인간으로서의 기독교인(아브라함을 모델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 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약 창세기 12 장 이하에 언급되어 있다. 창세기 12 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5 세의 나이에 이민의 길을 떠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그의 부르심과

떠남과 생애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게 되며,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 되며,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며, 약속을 믿는 신앙은 더 성숙한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 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도 인간적인 모습을 완전히 바꾸지 못한 우리와 같은 모습의 인간임을 찾아보게 된다. 첫 번째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 거짓말하는 모습을 창세기 12 장에서 찾는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기근을 피해 애급으로 내려가게 된다. 아내 사라가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기에 애급의 바로가 그 미모에 반해 사라를 취한다, 하나님이 애급 왕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린다. 바로는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준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잔꾀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거짓을 말한다.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고자 한다.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와 노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허무와 절망을 맛보게 할 것임을 알게 한다.

두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 년 이상의 긴 세월이 지났으나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도 나이가 점점 많아 자녀 생산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려고 하는 성숙하지 못한 인간성이 발로하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조급함과 불신이 아브라함을 지배한다. 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이라는 아들을 얻는다.[6] 하나님의 약속을 빙자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인간의 수단적 지혜를 보인다. 기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들이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6] 창세기 16장.

만들어 가는 시대가 현대의 모습인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런 인간의 계산에 능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조급한 행위는 실패와 고통이 따르는데 이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100 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된다. 인간의 판단과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을 버려야 하는 아버지로써의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통해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버지로써의 아브라함, 두 사이에 낀 아브라함은 고뇌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나 결국 신앙의 결단을 통해, 아니 처음부터 믿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따라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이스마엘이 사람의 아들이라면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신앙에 따라 사람의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택한다. 그리고 그를 제물로 바치려 한다.[7] 아브라함은 이삭이 희생의 제물로 바쳐질 때 아들의 죽음을 믿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8] 하였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있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의 신앙이 인간적 상황에 따라 성숙하지 못한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것을 알게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도 그가 가진 신앙의 투쟁과정, 성장과정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 방법, 세상적 수단,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쓰고 있고, 때로는 자기가 살기

---

[7] 창세기 22장.

[8] 히브리서 11:29.

위해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성숙하지 못한 인간적인 면이 살아있다. 그러나 신앙의 투쟁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져야 하며 성숙한 단계의 신앙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성숙한 인간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성숙한 신앙은 성숙한 인간으로 가는 정도임을 찾아본다. 성숙한 인간이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을 말한다.

제 2 장. 한인 교회에서의 평신도

1. 평신도의 정의

1) 성서적 정의

평신도를 가르키는 lay 라는 말은 "무식하다",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는 뜻으로 안수 받은 교직자를 제외한 일반 신자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성서적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된 것이다. 평신도라는 말 lay 는 헬라어 *laikos* 에서 나와 라틴어 *laikus* 로 쓰였는데 이것은 성경에 자주 쓰이는 *laos* 와 같은 뜻이다. 벧전 2:9-10 절에 나오는 *laos* 라는 말의 "그의 소유된 백성 " 이란 뜻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이란 뜻이다. 이 말은 어떤 특별한 특권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불리 울 수 있는 말이다.[9]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행 20:28 에 나오는 "자기 피로 사신" 엡 1:7 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살전 5:10 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얻은 자녀들을 말하는 것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말한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을 구약성경에서도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신 7:6 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선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선민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다. 여기서 하나님과

---

[9] 변재창, *작은 목자 훈련* (서울: 두란노서원, 1987), 9.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가 성립된다. 소유된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언약을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로 언약을 지켜주신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제사 행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제사에 의한 관계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언약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의 관계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희생을, 은혜라는 은총을 계속하여 택한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다.

신약성경에서의 *laos* 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시에 포함시켜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성서에서 말하는 평신도*(laos)*는 제한된, 구별된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교회에 소속된 성도 모두를 의미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왜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게 된다. 이는 오직 하나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여 지게 함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란 결국 선교와 교육, 봉사와 친교 등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중추적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소유된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이다. 더 나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쓰시려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를 고전 5:20 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즉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성도들을, 평신도들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본래적 사명을 다하는 주체로써 사명자로 세우려 하심임을 알 수 있게 된다. 평신도들은 교회의 선교 적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2) 신학적 정의

평신도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AD 95 년경에 Clement of Rome 에 의해서인데, 그는 교인들 가운데 어떤 특수한 직책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laikos* 라고 불렀다. 교회 안에서 직책이 없다는 것이 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아니었다.[10] 3 세기 중엽 부터는 구약적 제사장과 백성을 구분하는 계급적 용어로 전락되었고 유명한 Ignatius 는 “교회는 감독과 그 성직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 까지 하였다.[11] 앞서 살펴본 성서적 입장에서의 평신도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던 교회의 주체인 *laikos* 가 교회 밖에서 쫓겨나 세속에 속한 무식한 무리로 변질되는 아픔을 당하며 교회는 성직자들만의 교회처럼 되고, 교회의 주체인 거룩한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교회와 국가의 대립이 심화되자 교회 안에서도 두 계급의 교인들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는데 성직자들은 가르치고, 평신도는 듣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12]

개혁교회 전통의 시조라 할 수 있는 Calvin 은 평신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 자신을 더럽혀 졌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제사장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늘 제단에 들어가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제사를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바친다.”[13] 이것은 Martin Luther 가 제창한 ‘만인제사장직’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Calvin 이나 Luther 나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을 폐지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성직자가 교회를 이끌고 있을 때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구경꾼에 불과하였던 시대를 개혁지도자들에 의하여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체로 다시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

[10] “평신도” *기독교교육대사전*, 제 3권 (서울: 한국복자서원, 1987).

[11] 변재창, Ibid., 9.

[12] “평신도” *기독교교육대사전*, 제 3권 (서울: 한국복자서원, 1987).

[13] 이종성, *평신도와 교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1), 44.

Karl Barth 는 그의 『교회교의학』을 통해 교역의 형태를 12 항목으로 열거하는데 6 가지는 언어를 통한 행동이고, 다른 6 가지는 행동을 통한 언어라 말하면서 하나님 찬송, 설교, 가르침, 복음전도, 선교, 신학, 기도, 영혼치유, 모범된 사람, 물질적 봉사, 예언자적 행동, 친교 등을 말하면서 교회에서의 성직 계급제도, 성직자와 평신도, 직무를 가진 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구별을 거부하면서 "엄격히 직무를 가진 자는 없다, 모든 사람은 봉사할 수 있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봉사할 뿐이다. 의무에서 면제된 자는 없다"[14]고 하였다. Hans Küng 은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성직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직자의 기능을 갖는다"[15]라고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은 성서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에서 보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대해 Hendrik Kraemer 는 완전히 같아지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교회 안에는 중생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교인들 속에는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아닌 자들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점. 둘째, 교인들의 영적 미숙 때문에 평신도들이 그들이 되찾은 원리에 따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 셋째,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들을 길러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설교자라는 특수 그룹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등을 열거하면서 평신도들은 교회의 객체로서 목회와 통치의 대상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16]

---

[14] E.G. Jay, *교회론의 변천사*, 주재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503.

[15] Ibid., 542.

[16] Hendrik Kraemer, *평신도신학*, 유동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9), 64-68.

지금의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신도, 교회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어떻게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본래의 자리에서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성숙한 교인,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길이 시급하다 하겠다.

3) 사회학적 정의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이민교회의 특성가운데 하나는 교회 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교인 수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초기 이민시대(1970 년대와 1980 년대 초)에 비해 교회의 역할이 감소된 연유에 기인한다는 생각이 목회를 오래 하는 동안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필자의 견해이다.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가진 고유 업무처럼 여겨지던 사회사업적 역할, 즉 이민정착을 도와주는 일,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켜주는 일, 생업에 종사할 일거리를 찾아주는 일, 교회에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일, 이런 일들로부터, 더 발전되어 정신 상담과 가정문제(자녀문제, 부부관계, 고부관계), 문화충격을 완화 시켜주는 일, 한국고유문화 전통의 계승과 발전, 언어교육문제 등등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심히 컸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교회의 역할은 감소되고 교회의 본래적 사명에 더 충실해야 하는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한인신학교의 난립을 통해 소위 무자격 목회자(?)가 양산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교회의 분립이 심화되어 교인 수는 제자리이고 교회 수는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교회도 지난 1999 년을 분기점으로 교회 수는 많아지고 교인 수는 감소되는 기현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교회의 성장이 자연성장과 회심성장이 많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입성장 즉 교인의 수평이동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는 비성서적 성장모델을 한국교회에 많이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대형교회의 등장이 이루어지고, 대형교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동원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평신도들의 대 수평이동이 현실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교회의 주체로서의 평신도들의 대이동, 수평이동이 한국교회의 부패와 본질을 상실케 되는 근원이 되었다는 뼈아픈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의 해답이 평신도의 문제뿐이라고 단정 지어야 하는가? 아니면 교회의 성장을 부추기는 잘못된 교회 관, 교회의 세속화, 성공과 출세의 잘못된 가치관, 목회자의 과욕과 무자격 목회자의 양산, 영적 능력의 감퇴, 도덕적 권위의 추락, 이념의 양극화, 복음주의 쇠퇴, 등의 문제는 없다는 말인가?

John Wesley 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외칠 때, 세상은 그의 말을 경청하고 세상은 변하는 영적 기적의 시대가 있었고, Charles Finny 가 미국의 도덕적 타락을 부르짖으며 사회를 향해 영적 각성을 외칠 때 세상은 그의 말 즉 교회의 권위에 부응하며 영적 대 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지금의 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해 부르짖는 소리도 없고 부르짖어봐야 오히려 안티기독교운동이 힘을 얻는 현실이 되었으니 심각하다 할 수 밖에 없다(안티기독교운동을 전개하는 이들은 비기독교인거나 기독교를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몸담아 있었거나 신학을 공부한 이들이다).

이럴 때에 교회의 주체들인 평신도들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세상에 나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생활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평신도들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이 중요하며, 평신도들이 교회안의 평신도로서의 사명과 역할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헌신과 사명이 소중하다 할 것이다.

2. 평신도의 역할과 사명

1) 외형적 측면(교회 밖에서의)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세상으로 보내셨다(막 6:9). 그 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둘씩 한 팀을 만들어 세상에 파송하셨다. 그 뿐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쉬게 하셨고(막 6:31), 칭찬하셨으며(눅 10:19-20), 잘못한 방법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셨으며(눅 9:54-56), 인내를 강조하시고(막 9:38, 눅 9:55), 새로운 방법을 일러 주시기도 하시고(막 9:17), 제자들의 임무를 고무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기까지 하셨다(마 14:13-21). 여

기서 평신도의 외형적 즉 교회 밖에서의 평신도의 모습을 찾는 성서적 근거를 찾아보게 된다.

이민교회에서의 평신도란 성직자와 구별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평신도란 직장을 가지고 사회와 세계 속에 침투하여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백성가운데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17]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협력하며 일하는데 하나가 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평신도들은 세상에 나가 삶과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민사회는 두 사이에 끼여 있다. 하나는 미국이라는 주류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 객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인들의 사회이다. 미국사회는 점점 영적 쇠락의 길에 빠져가고 있는 시회이며, 교회는 점점 죽어가는 경향이 있는 사회이다. 한인사회는 이민의 생활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더 많이 일하고 수고해야 하는 사회이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과

---

[17] 사도행전 6:4.

함께 생존의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사회이다. 이 두 사회에서 괴리감이 없이 하나로 사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가서 두 사회에 끼여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교회에는 두 가지 즉,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차원이 있다. 평신도들은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받았다.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 그리고 공의를 선포하고 봉사하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사역자로서의 평신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두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Hendrik Kraemer 는 그의 책 『평신도 신학』에서 "평신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힘과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것이다" 고 말하고 "평신도들이 가지는 세상적 직업이나 교회 안에서의 성직자들이 가지는 것이나 거기에 무슨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평신도들이 갖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18] 고 했다. 특별히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스몰 비지니스에 종사하고 있다.[19] 우리들의 주요 고객이 미국사회의 소수민족인 Black 이나 Spanish 또는 경제적인 약자들인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 객들의 하나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민의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non-christian 과 똑같은 사업방식, 똑 같은 사고방식, 똑 같은 생활방식, 똑 같은 인종편견, 똑 같은 가치관과 인생관을 추구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나가 사역한다고 믿을 때 그들의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정당하며 능력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세상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평신도들에 의하여 그가

---

[18] Hendrik Kraemer, 68.

[19] Corner grocery, deli shop, dry cleaning store, gas station, liquor store, beauty supply,etc.

속한 지역사회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보여주며, 복음의 살아있는 증거자의 생을 산다면 이는 목회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교회의 현실성으로 볼 때 평신도 지도력의 함양과 신앙적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부분의 평신도들로 인하여 이민교회의 위상이 추락되거나, 복음의 문이 닫히거나, 기독교의 반작용을 유발시키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 형편을 이민교회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민교회의 분쟁과 분열현상, 서론부분에서 언급된 대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민교회의 출현, 교회 내의 비방과 폭력행위, 비리와 부패의 모습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민교회는 이민사회를 향해 얼굴을 들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선포할 힘을 스스로 상실해 가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를 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 잘 훈련 받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지도력을 겸비한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평신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써야 할 때이고, 교회들은 이런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다.

교회들이 성장지향적인 목회 관에서 평신도 훈련이라는 성숙지향적인 목회 관으로 속히 바꾸어야 할 때이다. 교회와 평신도들이 교회의 대 사회적 책임의 최전방에 평신도들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2) 내재적 측면(교회 안에서의)

이민교회는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교회를 구성할 때 목회자의 지도력만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체적 사역자로 나서야 하는 시대이다. 이에 따라 이민교회는 평신도들의 지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한국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사역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섬기는 종의 자세라기보다는 하나님 대신으로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전도되고 있다. 교회의 주체 즉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신도의 위치가 목회자의 명령수행자로 전락되었다. 명령수행의 충실한 자가 좋은 신앙의 소유자로 변질되었다.

이는 두 가지의 원인을 찾게 되는데 하나는 유교적 전통의 한국사회가 아직도 완존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유교의 권위적 태도가 목회자의 권위를 형성해 주었고, 교회가 목회자의 권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순종이라는 기독교적 덕목에 접붙임 한 결과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목회자의 카리스마를 권위로 착각하고 카리스마를 추구하는 목회자상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다.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리더쉽의 도구라 할 수 있다. 이는 소위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나름대로의 카리스마를 갖추었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존경의 대상은 될지언정 섬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만나 상담하려면 5,6 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만날 수 있다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는 목양의 의미는 이미 사라지고, 섬김의 대상으로 전락된 아픈 현상임을 자각하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숭상하는 잘못된 교회 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소위 성장주위, 성공주의, 물량주의 즉 세속적 가치관의 도입으로 인한 교회의 세속화의 소산물인 것이다. 소위 보혈의 복음이냐 아니면 기복의 복음이냐, 사랑의 복음이냐 번영의 복음이냐 하는 심각한 후유증이 교회에 남게 되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교회의 주체적 사역이 목회자 중심의 사역에서 평신도 중 심의 사역으로 바뀌어야 한다. 평신도들이 교회의 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섬김의 주체가 되며 나눔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책임과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평신도와 교회

1) 사역자로서의 평신도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은 부르신 백성들을 통하여 사역에 쓰임 받게 하기 위하여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 평신도들은 은사를 잘 가꾸고 훈련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이민교회의 심각한 문제가운데 하나는 사역이 은사중심이 아니라 체면중심이거나 세상 판단기준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겨진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재능,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주어진 은사가 쓰임 받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은사발견의 5 단계가 있다. 5 가 E 가 있다. 1 단계는 Explore,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2 단계는 Experiment, 봉사를 통해 실험하는 단계. 3 단계는 Examine, 영적으로 느낀 것을 분석하는 단계. 4 단계는 Evaluate, 효과적인 평가단계. 5 단계는 Expect, 교회의 인정을 가다리는 단계가 있다.[20]

평신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교사, 찬양대원 및 찬양사역자, 전도 사역자, 직장과 지역사회에서의 봉사(Community Service)사역자, 병원선교 사역자, 장단기 해외선교 사역, 이민교회의 현실에서는 홈 리스 돌보는 사역자(Homeless

---

[20] 교회성장연구소, *은사학교* (서울: 교회성장, 1995), 134.

Care), 런취 프로그램 사역(Lunch Program), 다른 소수민족 돌보는 사역(Ethnic Care), 이민생활을 시작하는 교포들을 돌보는 복지사역(Social Service), 청소년 문제사역, 노인복지사역, 상담사역, 문화교실사역, 전통음악 전달 사역, 한국과 한국어 알리는 사역 등등을 비롯하여 좀 더 다른 교회 안에서의 작은 면까지 살핀다면 예배를 돕는 안내위원, 헌금위원, 차량봉사위원, 식당봉사위원, 기타 사역자들에 이르기 까지 평신도는 은사 중심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Paul Stevenson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영역을 여덟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성경교사와 평신도 설교자, 둘째, 소그룹리더, 셋째, 평신도 목회자와 양육 상담가, 넷째, 예배 인도자와 은사 중개인, 다섯째, 직장 사역자, 여섯째, 이웃 전도자, 일곱째, 결혼 및 가정 사역자, 여덟째, 사회 정의 사역자 등이다.[21]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은사 찾기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관습에 젖은 세상중심의 사역자를 선택하는 대신 신앙을 중심한 은사중심의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양성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하여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자 뿐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담당하는 평신도를 양육해야 한다. 세상중심의 사역자란 재물이 많다든지, 지위가 있다든지, 명성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출세한 사람이라든지, 인기를 누리는 자라든지, 배경을 든든히 가진 자라든지, 심지어 도덕성과 윤리성에 하자가 있는 자라든지, 또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든지 하는 이유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직분자로 장로, 집사, 권사, 위원장 등등의 직분으로)로 세우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어서 신앙의 본질과 맞지 않고, 은사개발이 되지 않은 평신도들에게, 심지어는 사역자의 임무와 사명을 망각하고 교회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명예와 체면의 대명사로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허락되는 현실의

---

[21] R. Paul Stevenson,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1995), 48

사역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나님 사역의 다양한 영역에 쓰임 받는 주체로써의 평신도의 위치와 자세를 잃지 말아야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사역의 주체는 성직자에서 평신도로 확실하게 이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신도를 훈련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섬기는 자로서의 평신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0:26-27 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로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섬겨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해준 말씀이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12:26 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하셨다. 그리스도인이 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의미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세상을 섬기려 하신 다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섬기는 자이다. 섬김의 자세를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사람됨이란 섬김의 자세를 갖추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섬김의 신학적 배경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첫째는 *kerygma* 즉 말씀을 듣는 일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didache,* 말씀을 가르쳐야 하며 배워야 하며, 셋째 *koinonia,*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배운 말씀을 기초로 하는 사귐이 있어야 하며, 여기 사귐이란 친교라 할 수 있는데, 친교란 음식을 먹고 차나 커피를 마시고 게임을 하는 그런 친교가 아니라, 말씀의 공유와 더불어 말씀의 나눔을 의미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중요하며, 넷째가 *diakonia* 즉 섬김이다. 섬김은 말씀을 중심한, 말씀에 의거한,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실천하는 섬김이어야 함을 말한다.

섬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너스(*diakonos*)이다. 이 말의 어원은 *diakoneo* 에서 파생되었는데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이다. 다른 의미에서 이 말은 *doulos* 에서 왔는데 이 말의 뜻은 종, 노예라는 것이다. *diakonos* 가 views a servant in relationship th his work 라면 *doulos* 는 views him in relationship to his master 이다. 이 말에서 집사라는 deacon 이 나왔다.[22]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섬기는 자다. 교회는 섬겨야 할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다스리는 기관이 아니다. 다스리는 일은 어디까지나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명령과 권위로 이끌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감동과 감화로 인도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병폐는 카리스마를 업고 평신도들을 명령과 권위로 이끌고 있는데 있다. 사람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둔갑시키고, 사람의 권위를 제사장의 권위로 위장하여 평신도들을 우매한 종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섬겨야 함이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리로 뒤바뀐 것이다.

Hans Küng 은 그의 책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바울의 카리스마는 일차적으로 예외적이 아니라 일상적이요, 형태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며, 특정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혀 일반적이다" 고 하였으며 "카리스마는 단순히 옛날 일만이 아니고 극히 현실적인 현재의 일이며 비단 부속현상이 아니라 극히 본질적인 교회의 중심현상이다" 고하였다.[23] 카리스마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여 카리스마의 순기능을 역기능으로 만들어 버린 결과로 보인다. 평신도들의 대부분 교회는 잘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는 봉사를 아끼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교회는 잘 섬기면서도 교회 밖,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섬김의 자리는 종의 자리이다.

---

[22] *Vine's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 (Virginia: MacDonald, 1998), 274.

[23]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7), 139.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섬김 위해 오심을 닮아가야 한다. 그리스도가 죄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현대의 목회자들도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교회의 두 지체인 성직자와 평신도는 하나님의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섬김을 받는,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떠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성숙한 인간, 평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류를 섬겼듯이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교회와 세상을 섬겨야 한다.

3) 사명자로서의 평신도

가) 앞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인간은 창조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창세기 1:27 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곧 이어 28 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섯 가지의 사명, 즉 할 일을 주신다. 첫째가 생육하고, 둘째가 번성하며, 셋째가 땅에 충만 하라, 넷째가 땅을 정복하라, 다섯째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섯 가지의 사명을 주셨다.

창세기 2:16 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고 에덴동산에 두시면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는 일거리, 즉 사명을 주신다. 인간은 창조됨과 동시에 사명을 받은 사명 적 존재임을 알게 된다. 이 사명을 인간 본래적 사명, 태생적 사명이라 말해본다면 인간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일거리 즉 사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이란 사명 적 존재라는 말이다.

나) 구약성경 출애굽기 3 장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중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의 소명(calling), 부르심이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급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여 나오라는 사명(Mission), 일거리, 할 일을 주신다.[24]

사무엘 3 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을 때에 하나님은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만날 수 있다. 엘리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 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가르친다.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다. 소명에 따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는다.[25]

신약성경 사도행전 22 장에 보면 사울이 자신에 대하여 변명하는 구절들이 나온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다. 소명(calling)이다. 소명을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방선교의 사도라는 사명 즉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다. 이 사명을 소명 적 사명이라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에 응답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고백이 선행된 존재라는 뜻이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을까? 그 대답은 할 일, 즉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할 일, 사명이 있다. 使命이라는 말은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목숨을 내놓고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르다는 의미는 차별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구별이 있음을 뜻한다. 다르다는 말의 의미는 중하고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 똑같은 비중이라는 뜻이다. 성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24] 출애굽기 3:1-10.

[25] 사무엘상 3:1-21.

백성이 된 평신도들에게 맡기어진 사명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완성하였느냐? 충성을 다하였느냐? 칭찬 받을 만 하였느냐에 따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평신도들에게는 본래적 사명과 소명 적 사명이 있음을 신앙적 고백으로 삼아야 한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성숙한 평신도,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제 3 장. 성숙한 교인

1. 철학적인 성숙인

철학이 대상으로 하는 모든 문제점이나 탐구대상은 언제나 인간의 문제였고, 그 본질에 관한 문제로 집중되어왔다. Immanuel Kant 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라는 세 가지 물음을 던지고, 그의 논리학 서문에서 "오직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한 가지 물음으로 더하였다.[26]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서양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간이란 용어는 서로 융합될 수 없는 세 가지 이념 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며 그의 모상이라는 유대교적 내지는 기독교적인 전통이고, 다음으로는 고대 희랍으로 올라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있고, 세 번째가 진화론에 근거한 자연과학적 인간이 있다.[27] 여기서는 주로 기독교적 전통에 입각한 철학가들의 인간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Ernest Cassirer 의 인간학

Cassirer 는 1874 년 폴란드의 실레지아에서 출생하여 1945 년 4 월 미국 뉴욕에서 사망한 독일계 유대인으로 철학자며 교육자이고 많은 글을 쓴 작가이기도 하다. 베를린 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며 함브르크 대학과 예일 대학, 콜럼비아 대학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그의 저서로는『실체개념과 함수개념(Substanzbegrift und

---

[26] 월터 카프만, *정신의 발견 2*, 김평옥 역 (서울: 학일출판사, 1986), 203.

[27] Hans J. Strong, *세계철학사 하권*, 임석진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8), 416.

funktionsbegrift, 1910)』,『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대하여(Zur Einsteinschen Realtivitatstheorie, 1921)』그리고 『상징형식의 철학 (Philosophie der Symvolischen Formen, 1923)』,『인간이란 무엇인가? (An Essay on Man, 1944)』등이 있다.[28] 그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 책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

Cassirer 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보는 것은 좁은 견해라 보고 인간은 상징적 동물이라고 정의하며 인간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상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상징을 사용함으로 개별적 사물과의 직접적 관련을 넘어 세계의 전체적인 주체적 시야를 얻을 수 있다. 그리함으로 구체적 존재만의 세계를 떠나 추상의 세계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29]

모든 유기체는 가장 하등한 것이라도 그 환경에 순응하도록 되어있을 뿐 아니라 완전히 환경에 적합하도록 되어있다. 모든 동물의 종에서 볼 수 있는 수용 계통 (Merknetz)과 운동계통(Wirknetz)있는데 두 계통의 협동과 평형이 없으면 유기체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에 의하여 생물학적 종이 바깥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용계통 과 그것에 의하여 바깥의 자극에 반응하는 운동계통은 어떤 경우에나 밀접하게 얽혀 있다.(이것이 Uexkull 의 동물의 기능고리 이론).[30]

인간세계도 다른 모든 유기체를 지배하는 생물학적 법칙에 대하여 예외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인간세계에서 우리는 인간생활의 특수한 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새로운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물이 가지고 있는 두 계통이외에 인간에게는 상징 계통이라 할 수 있는 제 3 의 연결 물을 본다. 이것은 인간 생활의 특수한 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새로운 특징이다. 이 고리가 양적인 물론 질적인 면까지의 인간 생활 전체를 변형시킨다. 인간은 물리적인 우주에 살지 않고 상징 적인 우주에 산다. 언어,

---

[28] *기독교대백과 사전* Vol 14 (서울: 기독교문사, 1986), 438.

[29] Ernst Cassirer, *인간이란 무엇인가?,* 최명관 역 (서울: 창, 2008), 7.

[30] Ibid., 47.

신화, 예술, 종교 등이 우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들이 상징의 그물을 짜고 있는 가지각색의 실이요, 인간 경험의 엉클어진 거미줄이다. 인간은 이러한 거미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볼 수 없으며 알 수도 없다. [31]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의 고전적인 인간이해의 범주였던 이성적 존재라는 개념을 확대 해석하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비합리주의의 온갖 노력 중에도, 또 산재해 있는 비합리적 사건과 사고가 가득해도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정의는 힘을 잃지 않고 있으며 합리성은 모든 인간 활동의 고유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성이란 말은 인간의 문화생활의 여러 형태를 그 모든 풍부함과 다양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매우 부적당한 말이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 문화생활의 모든 형태는 상징적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는 정의 대신 상징적 동물이라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상징적 동물이라고 정의함으로 상징적 사고와 상징적 행동이 인간 생활의 가장 특색 있는 면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Cassirer 가 그의 『상징형식철학』을 통하여 상징형식의 철학은 인간의 본성 혹은 본질에 관한 그 어떤 정의가 있다면 이 정의는 오직 기능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실체적인 것으로서 이해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보면서 인간을 그의 형이상학적 본질을 구성하는 어떤 내재적 원리에 의해서도 정의할 수 없고, 도 경험적 관찰로서 찾아낼 수 있는 그 어떤 선천적 능력이나 본능에 의해서도 정의할 수 없다. 인간의 두드러진 특색, 그의 독특한 성질은 그의 형이상학적 혹은 자연적 성질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바 그의 일이다. 인간성의 범위를 정의하고 한정하는 것은 이 일이며, 인간 활동의 체계이다. 언어, 신화, 종교, 예술, 과학, 역사는 이 범위의 성분들이요 다양한 부분이다. 인간 활동들의 하나하나의 근본구조를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하는 그리고

---

[31] Ibid., 126.

그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 활동들을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서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철학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32]

Cassirer 가 인간을 이성적 동물에서 상징적 동물로 본 것은 인간 문화와 생활의 상징성, 기호와 상징의 문화라는 측면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라 보여 지지만 이성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의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고(하나님의 형상의 일원으로), 상징이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힘에 의하여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라 보았을 때 우리는 이성적 동물인 사람이 상징과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인간이라는 본래적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 보여 진다.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의 일환으로 본다면 Cassirer 의 인간학 또한 창조의 역사에 의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이 상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2) Martin Heidegger 의 인간학(본래적 자아와 비 본래적 자아)

Heidegger(1889-1976)는 1889 년 9 월 26 일 독일의 바덴에서 출생했다. 처음에 그는 로마 카도릭 신부가 되기를 희망했으나 후에 생각을 바꾸어 철학을 전공하게 된다. [33]

현상학으로 알려진 E. Husserl 밑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Platon 과 Kant 철학에 매료된다. 33 세에는 마르크부르크 대학의 교수가 된다. 그는 특히 실존주의 철학자 중 주요한 위치에 있는 철학자이다. 실존주의의 성서라고 불리 우는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이란 책을 1927 년에 저술 하였다. 그 외에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1929) 』『철학이란 무엇인가?』등이 있다. Heidegger 는 철학 계 뿐 아니라 신학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Bultman 에게 절대적 영향을 주었다.[34]

---

[32] 이대희, *인간이란 무엇인가?* (서울: 정림사, 2009), 299.

[33]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96.

[34] Ibid., 97.

Heidegger 는 인간을 현존재(Dasein) 라고 규정한다. Heidegger 는 Dasein 의 분석을 인간학적이나 심리학적, 생물학적과는 다른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35] 인간은 언제나 존재와의 연관 속에서만 인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존재인 인간은 다른 존재와는 전혀 다른 특이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존재와는 달리 스스로 존재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항상 문제 삼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존재방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존재와 다르다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존재에 관심을 갖는 인간 현존재를 실존이라 불렀다. 인간은 실존적 존재라는 말이다. 인간이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하여<존재의 우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현존재는 언제나 자신을 그의 실존으로부터, 즉 그 자신이거나 그 자신이 아니거나 하는 그 자신의 가능성으로 부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현존재란 세계내 존재(In-der-welt-sein)이다. 이것은 두 개의 대상이 공간적인 의미에서 병존한다거나 공간적으로 그 어떤 것의 속에 존재 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주관과 객관 사이의 어떤 관계로 파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계내 존재란 모든 현존재의 근본구조를 뜻하는 것이다.[36]

Heidegger 는 인간이라는 현존재가 호모사피엔스(예지인)가 아니라 호모파베르(공작인)라고 보았다. 현존재는 눈으로 세계를 보는 자가 아니라 손으로 세계와 교섭하는 자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미 세계 속에 들어가 세계에 대처하는 존재라는 것이다.[37]

Heidegger 는 인간에게는 본래적 자아(Eigentlic Ich)가 있는 현존재인데 본래적 자아가 비 본래적(Uneigentlich Ich) 자아로 변화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다. 죄가 인간을 본래적 인간에서 비 본래적 인간으로 변화되게

---

[35] Julian Marias, *History of Philosophy* (New York: Dover Publishing, Inc., 1967), 430.

[36] Ibid., 442.

[37] 이대희, 227.

만들었는데, 그것을 전락(혹 타락)이라 하였다.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라 보고 Heidegger 는 죽음 없이는 현존재가 본래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죽음은 현존재가 본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주는 유일무이한 사건이며, 현존재의 진정한 자기발견과 세계의 근원적인 개시를 가능케 해주는 통로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존재인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직면해야 하는데 이것을 죽음에로의 선구(Das vorlauf zum Tode)라고 한다. 죽음에로의 선구는 현존재인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유한성의 자각, 즉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시간적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든다. 여기서 신앙이라 는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 요구된다.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들어서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현존재의 비 본래적 자아는 본래적 자아로 회귀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여기에서 존재의 사유가 발생하는데 거듭 태어남이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의 삶과 삶의 세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존재의 사유를 통하여 인간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며 자기 확인의 결단 즉 신앙적 결단은 자기를 끊는 초월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8]

Heidegger 는 참 나인 Dasein 은 세 가지 근본적 특징을 갖는 존재이다.[39] 세 가지란 기분과 이해와 언어라는 것이다. 기분이란 환경에 따라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다. 또는 불안해지기도 한다. 기분의 부정적 절정에는 불안이 있다. 인간에게는 기쁨이나 즐거움 보다는 언제든지 슬픔과 걱정 그리고 불안이 더 많다. 이해란 인식논적 이해가 아니고 추상적이거나 이론적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실존에 뿌리를 박고 있는 존재를 안다는 것이다. 실존인 인간을 아는 것을 말한다. 이해가 없으면 참이란 것을 알 수 없다. 일상적인 개념적 이해의 기초를 말한다. 세계는 은폐성과 무개성이 있는데 Heidegger 는 이것을 진리라고 보았고 사람은 이 진리 안에 사는 것이라 보았다. 그래서 진리와 존재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Heidegger 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38] 이대희, 233-234.

[39] 이종성, 101.

3 가지 원칙을 말하는데, 첫째는 존재란 실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존재 그 자체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며, 세 번째가 존재는 확실한 실체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40]

언어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말이다. 하이데거는 침묵도 언어라 보았다. 침묵이 포함된 언어를 사용할 때 참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Heidegger 는 인간의 실존이 세 가지 제약성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 한다. 죽음과 불안과 유한성이다. 죽음은 이미 언급되었음으로 두 번째 불안을 생각해 보자. 여기 불안이란 공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오는 것이다. 즉 무라는 것이 불안을 초래한다. 나의 존재가 무화(無化)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불안을 말한다. Heidegger 는 무라는 것이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 있다고 보았다. 무 앞에 떨고 있는 불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는데 전율과 창조,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파괴도 하는데 이 불안이 바로 존재라는 것이다. Heidegger 는 인간의 유한성 안에서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였다.

Heidegger 는 믿는 다는 것은 실존적인 자기 초월로써 내적 행위가 되는 일인데 이것을 통하여 l 로서 인간은 신에게 속하는 자가 된다고 보았다. 인간이 세운 규준이 신 앞에서 가차 없이 폐기당하며 인간의 선이 여지없이 부서지는 경험은 구약을 통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역사적 경험이 되었다. 이 경험에서 신과 인간의 진실이 직면하게 되었다. 신은 인간이 세운 뜻이 거부당하는 인간의 존재의 심연에 있어서 비로써 구원의 절대자로 체험하게 된다.[41] 여기에 신앙이 설 자리를 얻게 되고 이 신앙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를 인간이라 보았다. 인간은 신과의 관계 속에 바른 존재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존재를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Heidegger 의 인간관은 유신론적, 즉 하나님 중심적 인간관이라 한다.

---

[40] Fredrick A. Olason, *Heidegger, The Philosophy Mind*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87), 135.

[41] 김병우 저. *존재와 상황* (서울: 한길사, 1983), 201.

2. 사회심리학적인 성숙인

1) Sigmund Freud 의 인간학

20 세기 인문과학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 인물을 뽑으라면 Charles Darwin, Karl Marx 그리고 우리가 살피려는 Sigmund Freud 를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인간에 대한 해석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특히 Freud 는 인간이해를 하는데 혁명을 가져온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현대 정신 분석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 알려졌다.[42]

Freud 는 체코슬라바키아 모라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1856 년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Jacob Freud 는 어린 Freud 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대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히브리적 사고와 히브리 전통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1933 년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의 저서들은 금서가 되어 불태워졌으며 반유대주의 정서에 밀려 1932 년 6 월 비엔나를 떠나 영국 런던으로 이주하게 된다. Freud 는 구강암에 걸려 30 차례에 가까운 수술을 받는 등 투병하다가 1939 년 9 월 세상을 떠난다. 그의 저서로는 주저인『꿈의 해석 (Interpretation of Dreams. 1900)』, 『토템과 타부(Totem and Taboo. 1914)』, 『정신분석학 소고 (A short Account of Psychoanalysis. 1924)』, 『 에고와 이드(The Ego and Id. 1923)』, 『쾌락의 원리를 넘어서(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1920)』, 『문명과 그 불만(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1930)』, 『환상의 미래(The Future of an Illusion. 1927)』 등이 있다.

그는 비엔나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였다. Freud 는 거기서 인간 본성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Freud 는 비엔나 대학에서 자기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에른스트 브뤼케 교수를 만나게 된다. 이 교수를 만나 인간의 마음구조와 무의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근본적인 출발점들을 알게 된다. 그 당시의 실증주의와 합리주의가 주장하는 인간 예찬론이 인간의식에 대한 찬가라면 Freud 는 인간의 행동을

---

[42] 임경수, *심리학과 신학에서 본 인간이해* (서울: 학지사, 2009), 23.

지배하는 무의식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변형시킴으로 인간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간을 지배하는 힘은 무의식이다. 인간은 지신이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얻음 경험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뿌리를 갖게 된다. 인간의 현재 행동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얻은 충격적인 경험이 무의식 안에 억압되어서 그런 행동에 영향을 준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통제받고 무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무의식화 되는 것을 의식할 수 없는 것인가? Freud 는 억압을 통해서 무의식화 된다는 것이다. 억압과정 자체는 의식이 인식하지 못하는 비 의식적(non-conscious)과정이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은 무시간적인 것이기에 시간이 통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과거의 충격적 사건으로 일어난 정신적 외상은 억압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 안에 머물고 있지만 이 무의식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무시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과거에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시간을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43]

Freud 에게는 인간을 좌우하는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하나는 성적(eros)인 본능인데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한 에너지라 보았고 다른 하나는 죽음(thanatos)이라는 본능이 있다고 보았다. Freud 는 성은 인간의 중심을 움직이는 가정 역동적인 힘의 원천이다. Freud 는 억압과 연관 지어서 성의 역할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성적 감정을 가지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경우 초자아의 원칙에 의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억압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Freud 는 『성에 대한 세 편의 글(Three Essay on sexuality)』에서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말하는데 아이들도 성적인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태어나서 1.5 세 까지를 구강기(Oral stage)이다. 이 기간 중 아이들이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입, 입술, 혀이다. 빠는 것, 핥는 것, 깨무는 것 등이다. 두 번째로 1.5 세에서 3 세까지는 항문기(anal stage)이다. 배설물을 보유하거나 내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쾌락을 경험한다. 세 번째

[43] Ibid., 39.

단계는 3 세에서 6 세까지의 남근기(phallic stage)이다. 자신의 생식기를 통해서 쾌락을 경험한다. 네 번째 단계는 6 세에서 11 세 까지로 잠재기(latent stage)이다. 모든 성적인 과정이 잠재기적 상태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이때 남성은 더 남성다워지고 여성은 더 여성다워진다. 다섯 번째는 사춘기 이후의 성기기(genital stage)이다. 이성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성숙한 성적 관심과 성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44] Freud 는 인간의 성적 욕구는 방임해 둘 수 없는 것으로 보았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 갈등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다.[45]

Freud 는 쾌락과 현실에 의거하여 성에 대한 억압과 분출을 시도하는 인간의 내부에는 의식의 구조가 있는데 이는 그의 초기에 제시된 것으로 무의식, 의식, 전의식으로 구분했다. 무의식(unconscious)이 인간의 가장 기저에 있어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힘이라면 전의식은 감시기능을 한다. 무의식의 생각이 의식의 세계로 떠오를 때 감사기능을 하는 전의식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검열을 통해서 불합격되면 무의식의 생각은 억압되어 그대로 무의식에 남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아주 편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전의식의 감시기능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무의식의 욕망이 의식으로 나타나게 된다.[46]

Freud 는 무위식의 세계는 의식의 작은 세계를 자기 안에 포함하기 보 다 큰 단계이다. 의식적인 것은 무의식적인 전 단계를 가지고 있다.[47]

이런 의식 구조가 성격구조유형론(typography structure)로 바뀌게 되는데 Freud 는 1923 년 인간성의 세부분을 자아(ego), 초자아(super ego), 원 초아(id)라는 용어로 구분하였다. 자아는 현실에서 행동하고 의식하는 나를 의미하고, 자아는 원초적

---

[44] Ibid., 43.

[45] 이대희, 197.

[46] 임경수, 47.

[47] Sigmund Freud, *꿈의 해석(하권)*, 이용호 역 (서울: 백조출판사, 1969), 401.

본능의 원 초아와 이상적인 초자아 사이에서 양자의 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의 감정이 자리 잡는 이드는 바로 무의식이다. 원 초아는 혼란, 본능, 비논리적 그리고 비조직적이며 모든 요소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게 한다. 자기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철저하게 쾌락원칙에 기초한다는 의미이다. 원 초아는 생물학적이고 신체기관의 본능적 요구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영혼보다는 신체에 더 가까운 자아(에고)는 이성과 상식으로 불리 우는 부분이며 양심의 판단작용은 슈퍼에고(초자아)에 존재한다. 초자아는 인간에게 어떤 것이 옳고 나쁜지 그리고 죄의식에 대하여 감각을 제공하며 인간의 개인적 욕구보다 는 사회에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고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억압을 사용하여 수용되는 것과 금기된 것을 조정한다.[48]

Freud 는 초자아를 세 가지로 보았는데 첫째는 양심으로 잘못된 행동에 따르는 처벌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둘째는 원시적 양심으로 유아나 아이 때 에 부모의 사랑, 허락 및 거절을 통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며, 세 번째가 자아이상(ego-ideal)로 적당한 행동에 대한 보상에 의해 발달된 것이라 보았다. 이 세가지를 통해 형성된 초자아는 비현실적 논리를 가지고 현실에 적응하는 자아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49]

Freud 는 종교를 인류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종교를 쾌락 원칙에 근거할 때라는 것이다. 그는 종교를 환영(illusion)이라 단정한다. 그에게 있어서 종교는 유아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이한 것이며, 종교란 인간의 정신적 기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신비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 없으며 인간은 어떠한 목적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고 보았다. 이러한

[48] 이대희, 197.

[49] 임경수, 49.

인간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종교라고 보았다. 종교를 추구함으로써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50]

이상에서 우리는 Freud 의 정신분석적인 인간이해를 살펴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종교의 기능이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하나의 도구로 보았음을 알게 된다. 종교와 인간과의 이해를 정신분석학적인 견해로 밝힘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 단지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하나의 인간성으로 들어내는 약점을 보이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이다.

2) Carl G. Jung 의 인간학

Carl Jung 은 1875 년 스위스의 케스빌에서 감성적이며 이성적인 개신교의 목사인 폴 융과 외향적이며 신비주의와 영성이 많은 어머니 프라이스베르크의 아들로 태어나 4 세 때부터 바젤에서 자랐다. 그는 1900 년 바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생활을 하며 이 때 Freud 의 『꿈의 해석』을 읽고 그의 사상에 매력을 느낀다. Freud 는 국제정신분석학회의 초대회장이 되고 그의 후임으로 Jung 을 생각할 만큼 친숙해 졌으나, 1909 년 미국 클라크 대학 초청 강연에서 Freud 가 Jung 의 꿈 해석을 거부하는 사건으로 둘의 사이가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된다.[51] 이 문제 즉 Freud 와 Jung 이 갈라진 이유에 대하여 Jung 은 Freud 가 모든 정신병의 근원을 성적인 것으로 보는 환원주의와 고집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고 Freud 는 Jung 의 종교에 대한 관심과 시각을 못마땅하게 여기가 있다가 Jung 이 리비도(Libido)가 항상 성적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일반화된 에너지라는 시각을 발전시키자 깨지고 말았다.[52] 이때의 결별로 Jung 은 집단 무의식, 영성, 그리고

[50] Ibid., 45.

[51] Ibid., 71.

[52] Howard J. Clinebell, *현대성장상담요법*, 이종헌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1990), 105.

아동기 발달보다는 인간의 발달이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된다는 것, 특히 중년기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어 그 나름대로 독특한 인간심리 이해방식을 형성하게 된다.[53]

Jung 은 모든 인간에게는 전인성에로의 귀소본능과 충동이 있다고 보았다. 충동이 본질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라 보았는데 인생의 과정이란 약한 자아(ego)에서 시작하여 성숙된 자기(self)를 찾아가는 것이라 보고 자기를 찾아 가는 과정을 개체화, 개성화(individuation) 또는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이라 보았다. 개체화는 유일하고 동질적인 존재로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자아를 의식세계의 중심으로 보고 자기(self)는 전체 성격의 잠재적인 통합중심으로 보아 양자를 구별한다. 전인적 인간에게는 4 가지 심리적 기능을 즉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54]

개체화는 인생의 모든 시기에서 서서히 시작되어 인생의 종착점까지 지속되는 과정이지만 Jung 은 중년기에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인 사건으로 생각한다. 각 사람에 따라 과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 단계를 말하는데 첫째는 사람의 정신이 전인성을 향하는 자연적인 경향을 가지는 단계, 둘째는 개체화를 향한 화해의 경향단계, 셋째는 인생의 의미를 구하는 단계, 즉 무의식과 의식사이의 화해적인 과정의 단계, 즉 무의식과 의식의 화해적 과정이란 무의식에 있는 원형(archetype)이 곧 의식의 태도로 변형되어 현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 현현의 과정을 Jung 은 개체화라 하였다.[55]

개체화의 과정에는 4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가 Persona(가면)벗기기이다. Persona 란 내적 필요와 외적 기대에 대한 조정을 허락하는 가면이다.[56] Persona 는 사회적 전통과 환경이 사회 속에 머무는 개인에게 요구함으로서 발생한다. Persona 에게는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피상성, 지겨움, 완고함, 변함없는 진부함 등 이지만, Persona 는

[53] 임경수, 71.

[54] Howard J. Clinebell, 107.

[55] 임경수, 81.

[56] Robert L. Moore and Daniel J. Meckel, eds., *Jung and Christianity in Dialogue* (New York: Paulist Press, 1990), 215.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과정이며, 개인이 사회에서 생존하고 살아가도록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Persona 는 인간의 의식 중에서 가장 상층부에 있는 의식구조로 인간을 대표하고 자신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Persona 는 개인의 무의식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다.

개체화의 두 번째 과정은 그림자에 관한 것이다. Jung 은 인간에게 주어진 억압들이 그림자 주위로 결합되어 숨겨진 부정적인 자기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자아의 그림자가 된다고 말한다. 그림자가 억압되고 의식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림자는 자발성과 본능적 에너지, 창조성의 잠재적 원천이 되는 것이다.[57]

개체화의 세 번째 과정은 아니마(Anima.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와 아니무스(Animus.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이다. 인간은 양성적 존재로 태어나는데 양성 중에서 우세 한 쪽이 성을 결정하고 의식이 되고 나머지 성은 무의식이 된다고 보았다. 남성 안에는 여성성의 아니마(에로스로 표현됨)가있고 여성 안에는 남성성의 아니무스(로고스로 표현됨)가 있는데 이 양자 간의 통합이 없이는 개체화 작업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58] 에로스가 화해와 조정이라는 관계성을 중요시 하고 개인의 관심과 주관성에 가치를 둔다면, 로고스는 객관적인 관심의 구조와 형식에 가치를 둔다. 문제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개인 안에 얼마나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가인데, 만일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남성은 과도하게 민감하고 우울한 사람이 되고, 여성은 편견에 가득하고 과도 한 논쟁에 의해 조정 당하게 된다. 페르조나가 사회와 개인의 관계성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개인의 내적 세계와의 관계성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

[57] Howard J. Clinebell, 81.

[58] 임경수, 9.

남성이 아니마를 되찾고 여성이 아니무스를 되 찾게 된다면 전인적이며 양성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개체화의 네 번째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되는 전체 인성을 통합시키는 핵인 진정한 자기를 발달시키는 것이다. Jung 은 무의식이 전 인성으로 향해 움직이는데 필요한 주된 자원을 제공한다고 보았는데, 자아는 여전히 의식의 중심이고, 자기는 인성의 중심으로 보았다. Jung 의 무의식은 초인간적, 영적무의식이었다. Freud 가 말하는 욕망의 덩어리로서의 원 초아(id)뿐 아니라, 신화적인 원형의 그리고 영적인 에 너지를 담고 있는 무의식이었다. Jung 은 Freud 와는 달리 무의식을 지성, 창의성 그리고 영적 초월성을 보충하는 힘이라 보았다. [59]

Jung 은 각 사람 속에는 신의 형상(*imago dei*)을 경험하도록 허락받았다고 하며 자기는 신에게 매일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다.[60] 인간에게는 초월적인 차원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원이 중심이 될 때 인간은 전인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기독교 전통에서의 영혼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Jung 의 인간이해는 모든 인간은 같은 뿌리의 선과 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전적으로 외향적인 인간이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내향적 인간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겉으로 드러내려는 사회적인 페르조나를 가지고 있다면 어두운 부분인 그림자도 가지고 있어서 감추려한다.

특별히 Jung 은 인간에게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다른 심리학자들이 보는 인간이해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이는 Jung 이 가족적인 배경인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여 지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받았다는 Jung 의 생각은 기독교적 인간이해를 심리학적 입장으로 찾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생각된다.

---

[59] 정소영, *상담과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110.

[60] Howard J. Clinebell, 109.

3. 성서적인 성숙인

1) 구약에서의 성숙한 인간 (창 1:26,27 절 중심으로)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으로 창세기 1:26 절과 27 절에 처음 나타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 람을 만들자 ……"[61].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62]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e)과 모양(Likeness)로 창조되었다고 설명한다. 히브리어에 형상은 첼렘(Tselem)이고 모양은 데무트(Demut)인데, 영어로는 형상을 Image 로, 모양은 Likeness[63]로 표현하고 있다.

교부 신학자 Origenes 는 "형상은 창조 시에 받은 것이고 모양은 나중에 그 형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라 했다. Calvin 은 형상을 본질적 인 것(exists in the substance)으로 보았고 모양은 비본질적인 어떤(accidents of anything)으로 보았다.[64]

반면 Karl Barth 는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창 1:27 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으로 보고 여기서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표본이라 보았다.[65]

---

[61] 표준새번역, 창세기 1:26.

[62] 창세기 1:27.

[63] *Calvin's Commentaries* vol.1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9), 93.

[64] Ibid.

[65] 이종성, 52.

Paul Tillich 는 인간이 가진 자기구조가 신성한 영역에 속한 것이라 보았는데 인간은 위대성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자기에 대하여 신성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자기라는 존재의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66] 이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함께 지니고 있음이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간은 지적이고 인격적이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며, 도덕적 진실성과 종교적 성결성에 대한 의식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할 수 있다.[67]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인간에게 남아 있는지 하는 문제의 대두이다. 이 문제에 대한 로마 카도릭의 입장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은사를 인간에게 주었는데, 하나는 자연은사이고 다른 하나는 초자연적 은사이다. 자연은사는 이성, 양심, 판단력, 정의감, 용기, 자제심 등이 있고, 초자연적 은사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아담이 범죄 함으로 파괴되고 잃어버린 것은 바로 초자연적 은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생활,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담이 타락했을 때 가능성을 상실 하였다는 것이다.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에게는 자연적 은사는 남아 있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68]

---

[66] 임경수, 15.

[67] 강병도(편), *호크마 종합주석 1권 창세기*, (서울: 기독지혜사, 1989), 135.

[68] 이종성, 54.

반면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을 보면 Martin Luther 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보다는 인간의 본성과 본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부패를 강조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은 죄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 후에 인간에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고 말한다.[69] Calvin 은 좀 더 강하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에 대하여 말하는데 "가령 완전히 없어지고 파괴 되지 않았다고 인정 한다 해도 그것은 너무나도 부패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소름이 끼칠 정도의 기형물 밖에 없다" 고 말한다. 인간의 타락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 형태는 있다 해도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70] Calvin 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파괴되기 전에는 사람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보았으며, 인간은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이 남아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지식이 나타 나며 그것이 인간과 다른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았다.[71]

한편 Emil Brunner 는 그의 책 『자연과 은총』에서 언급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기 때문에 원의(*justitia originalis*)는 상실되었다. 따라서 자연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도 없거니와 할 생각도 못한다. 그리고 자유의지도 없다 하였다. [72]

인간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가진 고유한 존엄성과 함께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화 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가 그 어떤 피조물보다 크나큰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69] Ibid. 56.

[70] Ibid.

[71] Ibid.

[72] Ibid., 58.

참된 인간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그 상태의 인간을 의미한다. 참된 인간이란 하나님과 대화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으며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사명의 사역은 바로 성숙한 인간, 참 사람의 회복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 초점이 바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속의 사역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목회의 주안점이 여기에 있음을 자각하는 교회와 목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바울의 성숙한 인간 (엡 4:13-16 을 중심으로)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활동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나타는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후 5:17 절에 나타나는 새로운 피조물일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삶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는 구속의 은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분이시고, 성령은 구속의 은총을 받은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이며 보증이고 또 처음 익은 열매인 것이다.[73] 믿는 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생겨난다. 문제는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사람을 말 한다. 여기 온전하다는 말의 희랍어 텔레이온(*Teleion*)은 완전이라는 의미보다는 성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성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고린도전서 2:6 에 나오는 온전한 자와 같은 의미이다. 고린도전서에서의 온전한 자는 영적인 일을

[73] *기독교대백과사전* 6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6), 1260.

이해하는데 있어서 성숙한 자인, 신령한 자라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자로써, 성숙한 자란 구원받은 자 즉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 구원받은 사람과 성령 받은 신령한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한다.[74] 고전 2:14 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오직 육적인 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75]

요일 2;16 에는 반면에 신령한 자란 구원받은 자로 영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생각은 곧 생명과 평안을 준다.[76] 육에 속한 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며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믿음이란 한낱 단어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사람을 성숙한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성숙한 사람이란 Calvin 은 그의 에베소서 주석에서 “완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77]고 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다. 장성한 이란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분량에 이른다는 뜻과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뜻이다. 성숙한 사람이란 육적으로 성장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으로 미숙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미성숙의 길에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 간사한 유혹 즉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들 같은 것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자기를 맡기지 않는 사람이다. 진리를 분별하는 힘을 가졌고, 정의를 숭상하는 의지가 있으며,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

[74] 강병도, *호크마 종합주석 27권*, 52.

[75] Ibid., 58.

[76] 로마서 8:5-6.

[77] *Calvin's Commentaries* vol.21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9), 283.

정신을 소유했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그의 인생의 모든 목표와 가치의 척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이다. 그의 전 생애의 과정을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성숙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이다. 그 사랑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에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은 성품에 있어서나 실천력에 있어서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3) 마태가 전한 인간(마태복음 5:3-10 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인간관)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흔히 복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이 누려야 하는 8 가지 복에 대한 말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8 가지 형태의 모습은 인간의 참다운 모형, 내지는 참다운 인간이 지녀야 할 성숙한 자세라 할 수 있다. 성서가 지향하는, 예수님이 이상적으로 그리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은 8 가지의 인간의 마음 내지는 성품, 또는 보다 격이 높은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성숙한 인간이란 3 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 4 절의 애통하는 자, 5 절의 온유한 자, 6 절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7 절의 긍휼히 여기는 자, 8 절의 마음이 청결한 자, 9 절의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10 절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등 8 가지가 모두 통합된 자이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는 한 결 같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며 가시적인 축복을 구하는 일에는 능숙하지만 인간다움이나 양심적이라는 말이나 도덕적 가치추구나 나가서 영적 건강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 가고 있는 형국이 된지 오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저하는 곧 인간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라 보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인간의

8 가지의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 산상수훈 의 8 복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인간관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 심령이 가난 한 자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만심, 자신감, 자부심, 자존심 등을 가진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을 말한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 것도 아니며,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 사람을 말한다.[78] 심령이 가난 한 자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채우려 하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채우셔야 자기 자신이 생겨난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형성된다. 미성숙한 사람은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인 물질이나 명예나 부귀나 욕심이나 야망으로 채운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운다.

나) 애통하는 자란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는 사람을 말하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해 애통하는 영적인 애통이며, 인간들이 자랑하며 마음으로 믿고 의지해 왔던 도덕성과 자기 의(self Righteousness)에 대한 애통이며, 자기 과신의 원인이 되는 독선적인 태도에 대한 슬픔을 말한다.[79]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허물과 실수, 죄와 불의를 슬퍼하며 자신의 죄를 두려워하며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즉 자신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 온유한 자란 완고함, 사나움, 복수심을 가진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다. 온유란 말의 의미를 Calvin 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노하기를 더디 하며 절제할 수 있 것 이라" 했으며, 철학가 Aristoteles 는 "자연적 격노에 대하여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라 했다.[80]

---

[78] A. W. Pink, *산상수훈(상)*, 지상우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6), 17.

[79] 강병도, *호크마종합주석 21권*, 226.

[80] Ibid.

온유한 사람이란 겸손한 사람을 말하며, 관용을 베푸는 사람을 말하고, 성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한다. 온유한 사람이란 온순하고 유순하고 순종하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을 말하다. 온유한 사람이란 힘에 의한 강함이 아니라, 의의 원리에 입각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데서 생기는 강함을 지닌 사람이다.[81] 성숙한 사람이란 강함을 가졌으나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 약한 듯 강한 사람을 말한다.

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란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의로움을 지닌 사람 일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82] 여기에서 의라는 말은 영적 축복을 의미하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의,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이고 거룩하게 하는 의를 말한다. 따라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란 속죄의 목마름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을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를 통해 거룩해지고 내적으로 배부름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다. 성숙한 사람이란 자신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뿐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다.

마)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란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며, 고통당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동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시련을 당하는 자들의 상황에 깊이 동참하여 그들이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다.[83] 긍휼이란 말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는 마음인 동시에 고통 받는 자의 고난을 슬퍼하는 애정과 호의의 마음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마음을 말한다.[84] 성숙한

---

[81] A. W. Pink, 29.

[82] 강병도, *호크마종합주석 21권*, 227.

[83] Ibid.

[84] A. W. Pink, 37-38.

사람이란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뿐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을 말하며 인간애에 입각한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사람을 말한다.

바) 마음이 청결한 자란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원천이 되는 마음이 탐욕과 미움과 여러 가지 마음에서 해방되어 내적인 청결을 이룬 사람을 말한다. 청결이라는 헬라어는 카다로스(*Kadaros*)인데 유대교 의 정결예식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로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말이다.[85]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속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심어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하면 할수록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더욱 잘 발견하게 되고, 그 사실을 슬퍼하게 된다. 청결한 마음은 못된 생각과 비열한 상상력과 사악한 욕망을 깨닫게 하는 마음으로 교만과 불만, 불신앙과 감정의 냉담함을 애통해 하는 마음이며 불 경건에 대하여 혼자서 우는 마음이다.[86]

성숙한 사람이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의 깨닫는 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속성의 탁월함을 자각하는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은 마음에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채워져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과 능력으로 채워진 사람이다.

사) 화평케 하는 자란 화평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란 뜻이다. 화평이란 히브리 어의 샬롬(*Shalom*)과 같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개인의 안녕과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한다.[87]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이고 이것이 바로 샬롬의 의미이다.

---

[85] 강병도, *호크마종합주석 21권*, 228.

[86] A. W. Pink, 44.

[87] 강병도, *호크마종합주석 21권*, 228.

다른 인간의 모습과는 달리 화평케 하는 자란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인간상을 말한다. 화평을 만드는 일, 화평을 이루는 일을 말한다. 화평케 하는 자란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을 막고 가라앉히는 사람이며, 일치를 사랑하고 조화를 꿈꾸며 불화를 화해시키며, 싸움을 가라앉히고 사이가 벌어진 자들을 화해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화평을 깨트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에 명심 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세상에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 즉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화해와 평화와 하나 됨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다. 분쟁을 막고 화해를 이룩하며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요구되는 시대가 현대라는 시대이다.

아)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란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을 거절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악한 사단의 꾐에 빠져 공의를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많은 인간들 가운데 특별히 공의를 위하고 공익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번영을 바라는 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이다. 자신의 못된 행실과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일로 고통을 받거나, 우상에게 절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복음의 화장을 위해 진력하다가 고초를 맛보거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제를 받게 됨으로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한다.[88] 세상이 어려울 때 일수록, 죄악이 관영하는 세대일수록,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는 사회일수록, 공의와 정의가 희미해지는 세상일수록, 양심과 도덕이 무너져 내리 는 개인일수록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을 바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란 불의와 부정과 비리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88] Ibid., 229.

산상수훈이 주는 교훈을 일반적으로 복을 받는 일에 대한 관심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산상교훈을 통해서 주시려는 참다운 인간의 모습, 즉 성숙한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성숙한 인간이 가져야 할 성품과 성숙한 인간이 행해야 할 일들에 관한 교훈이다.

처음에 나타난 5 가지 성품은 참된 인간은 오만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자기만족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 상태 때문에 애통해 해야 하며, 마음과 생활 속에 방자함이 아니라 온유여야 하며, 독선적인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의에 목말라 해야 하는 인간상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한다. 즉 긍휼을 베푸는 행위, 화평케 하는 행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행위이다.

성숙한 사람이란 상이한 문화, 상이한 역사적 배경, 상이한 소명과 사명, 상이한 사회적 수용과 도전, 상이한 종교적 섬김 속에 처하여 있으나 무엇이 정도이며 무엇이 인간의 길인지를 깨닫는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며 그것을 구체적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화란의 신학자 Albert van den Heuvel 이란 사람은 산상수훈이 그리스도의 초상이라고 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완전하게, 자비롭고, 청결하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대의에 그렇게 충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89] 그렇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야 한다. 예수를 닮은 인간상의 구현이 성숙한 인간이 되는 지름길이며 참된 인간이 되려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따르며 예수가 걸었던 삶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 예수는 그래서 참 인간이 가져야 할 성품들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설명을 산상수훈, 특히 8 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다.

4. 신학적인 성숙한 교인

[89] Elliot Wright, *8복과 믿음의 위인들 77인*, 김영배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2), 18.

1) Paul Tillich 의 관점

Paul Tillich 는 1886 년 8 월 20 일 독일의 구벤 지방에서 주교를 지내는 아버지 Johannes Oskar Tillich 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반면에 그의 어머니는 민주적이며 자유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다. Tillich 는 1904 년 베르린 대학에서 신학수업을 시작으로 튜빙겐, 할레 대학에서 수학했고 1910 년 브레스라우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고 1911 년에는 할레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는다. 1929 년 프랑크프르트 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나 1932 년 유대인학생을 도왔다는 이유로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그의 저서들이 불온문서가 되는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한다. 이때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으로부터 강의를 부탁받고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Tillich 는 65 세가 될 때까지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의 교수로 봉직하다가 은퇴하고 하버드대학 특별교수가 된다. 그 후 시카고대학에서 강의하다가 1965 년 세상을 떠난다.[90]

Tillich 는 신학자요, 신학에 기초한 철학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늘 고민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것이었다. Tillich 는 인간자체와 인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고민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학에서 인간중심의 신학으로 끌 어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Tillich 는 심리학적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Tillich 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악이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세 가지란 불신앙, 교만, 욕심 등이다. 불신앙이란 인간은 신적인 섭리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실존적 자기실현(existential self realization)을 위해 자기 몰두(self-absorption) 에 빠져 자기 자신과 자기 세계에만 집착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분리가 시작되고 인간 중심이 되는데 이를 불신앙이라 보았다. 즉 불신앙이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분리되는 단계에 있거나 그런 행동을 말한다.

[90] 임경수, 238.

교만 혹 오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는 위대함을 생각하고 인간 자신이 가진 한계성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는 인간에게는 위대함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인간은 깊은 내면 속에 자기 우월성이라는 오만이 자리 잡고 있게 되었다.

욕심 혹 욕정이라는 것은 식욕, 성욕, 지식, 힘, 물질적 부유함, 영적인 가치추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간의 욕망이 뻗치는 모든 요소를 총괄하는 말이다. 욕정이란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과 세계를 관련지으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Tillich 는 이러한 세 가지 악들이 부정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그 내면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한다.[91] Tillich 는 인간에게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가지 한계성은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서 특성을 나타내면서 모든 존재를 위협하는 비존재의 요소로 존재한다. 4 가지 한계성이란 시간과 공간, 인과 율 그리고 실체의 현상 같은 것을 말한다. [92]

인간이 가진 시간의 속성은 일시적이다. 인간은 현재라는 시간을 소유하고 살아 가지만 현재는 인식하는 순간 과거로 흘러가 버린다. 미래는 예측 할 수 없지만 아직은 아닌 세계의 시간이다. 인간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가 시간의 속성 안에서 사라진다는 두려움으로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비존재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진 시간의 일시성이나 허무 성으로 인한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Tillich 는 불안의 극복은 불안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성이 경험되는 인간에게 용기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인간이 가진 두 번째 한계성은 공간의 한계성이다. 인간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있고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왔다. 공간의 소유를 통해 서 자신의 존재감이나 우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좌절감이나

[91] Ibid., 248.

[92] Ibid., 251.

패배의식에 빠지기도 한다. Tillich 는 인간이 공간을 확보하려는 욕구는 비존재에 종속되는 것이라 보았다. 인간이 개인이나 역사를 통해서 소유하려는 공간의 확보는 그것을 영원히 확보할 수 없다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간성을 확보하려고 평생 노력하지만 그 공간은 머지않아 반드시 상실의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 인간이 의존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93]

인간이 가진 세 번째의 한계성이 인과율의 한계성이다. 실존하는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생명체는 존재의 근거와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것의 무기력함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경우는 자신을 넘어서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추적하면 결과적으로 무한대의 원인이 꼬리를 물고 제기된다. 유한적인 존재는 스스로 원인이 되어 온 자가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다. [94]

인간이 가진 한계성 가운데는 실체의 한계성(substance)이 있다. Tillich 는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고 증명하려는 것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인간의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의 제한성으로 인로 영원성을 추구하고 있다.[95]

인간이 지닌 네 가지의 한계성은 결국 인간에게 불안을 초래하고 만다. 불안은 인간 존재가 자신에게 있을 비존재에 대하여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96]

Tillich 는 인간이해를 신학적 내지는 심리학적 입장에서 이해하였다. 인간 자체는 존재의 근원인 궁극적 근원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인간을 이해하는 노력가운데 인간 자체와 인간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 하였다.

---

[93] Ibid., 253.

[94] Ibid., 254.

[95] Ibid., 255.

[96] Paul Tillich, *존재의 용기*, 차성구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112.

무엇보다 Tillich 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는데, 죄란 산산히 조각난다(asunder)는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는 말로 죄는 분리이다. 분리에는 3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개의 생명 간에 있는 분리를 말하고, 두 번째는 자기로 부터의 분리이며 그리고 세 번째가 존재의 근원으로 부터의 인간 전체의 분리를 말한다.[97]

이 견해에 따르면 성숙한 인간이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즉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존재를 말한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다는 뜻이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2) Karl Barth 의 관점

Karl Barth 는 1886 년 5 월 10 일 바젤대학의 신약학 교수인 프리츠 바르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학자로써 가정의 분위기 뿐 아니라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도 복음적 신학의 영양을 받아먹으며 자라는 동시에 진지한 학문적 분 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베른 대학의 교수로 신약학과 교회사를 가르쳤다. 그는 16 세 때에 조직신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신학자가 될 것을 결심하기도 한다. 여러 대학에서 공부하였는데 베른 대학, 베르린 대학, 튜빙겐 대학, 마르브르크 대학 등지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98]

그는 1908 년 23 세에 베른 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제네바교회와 자펜빌 교회에서 목회하기도 한다. 목회하는 동안 자유주의적 사상에 근거를 둔 설교에 치중하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지상건설은 신의 부성과 인간의 형제 성을 통해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배운 것이 낙관적인 인간관과 역사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설교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설교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가 자라온

---

[97] Paul Tillich, *흔들리는 터전*, 김천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199.

[98] 이종성, 122-123.

배경이나 개혁교회의 전통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기로 하고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한다. 로마서 연구를 통해 Barth 는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는 동시에 자유주의와는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이 연구 결과를 묶어 책으로 펴낸 것이 바로 1919 년에 출판된 『로마서』이다. 로마 카도릭의 저명한 학자인 K. Adams 는 이 책이 "신학자들이 놀고 있던 운동장에 떨어진 폭탄처럼 삽시간에 전 신학계를 뒤흔들어 놓고 말았다" 고 했다.[99] 1921 년에는 개정판『로마서』가 출판된다. 이때 Barth 는 괴팅겐 대학의 교수 초빙을 받고 36 세의 나이에 교수가 된다.

Barth 의 『로마서』가 당시 신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는 획기적인 책이 된다. Karl Barth 의 사상을 Torrance 는 "Barth 의 사상은 언제든지 두 개의 기둥 사이를 오가고 있다. 하나님의 빛과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성서 안의 세계와 그의 주변에 있는 인간 존재의 구체적 삶 이었다"[100]고 말하기도 한다.

자유주위 신학이란 것이 인간 이성의 신뢰, 성서의 권위에 대한 평가 절하, 예수님의 인간성 강조, 진화설의 인정, 사회성의 강조 등등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Barth 는 자기가 자라온 배경과 분위기 그리고 부친으로 부터 영향 받은 복음주의 적 사고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자유주의는 결국 사람중심, 사람의 이성중심, 사람의 가치성이 인정받게 되니, 자연 인간이해에 대하여 낙관적 태도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Barth 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발견된 중요한 사실은 인간과 인간의 활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가서 Barth 는 인간 존재의

[99] Ibid., 125.

[100] Ibid., 129.

근거를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에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시켜 놓았을 때 인간은 적 나나 한 자기의 현실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101]

Barth 는 참다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 보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을 때는 인간의 가치는 상실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은혜 아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 쪽을 향해서 보면 '응답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102]

Barth 에 의하면 인간은 선에 대해서는 무능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 선을 모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능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유한하고 상대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들의 주변에는 온갖 유한성이 둘러싸고 있고, 인간은 그 안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고, 고민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유한한 존재일 뿐이다.[103]

Barth 의 인간학 이해에 가장 중요한 점은 Barth 는 그런 인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인간에게 참 사람인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참 사람인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인간은 참 사람인 그리스도를 떠날 때 어떤 인간학도 가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대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선포된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

101 윤성범, *칼 바르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141.

102 Ibid., 143.

103 이종성, 131.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의 안에서 만 가능하다.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은 비로써 인간실존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 인간의 실존이해는 그리스도론 적 인간 이해라 할 수 있다. [104]

Barth 는 인간의 이해를 3 가지 측면에서 보았는데, 하나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 본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공동존재이며, 둘째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Leib und Seelel-sein)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이루어지는 존재라는 것이고, 셋째로 인간은 일회적인, 처음과 나중 사이에 제한된 시간적 존재라는 것인데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다.[105]

Barth 는 그의 교의학에서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밝게 되는 장소 즉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추어지는 근원이 되는 장소는 인간이다"는 견해를 가지고 인간을 신학적 피조물로 보았다는 것이다.[106]

Barth 는 인간을 '하나님과의 계약'과 이웃사람과의 만남 " 에 있어서의 존재로 이해한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관계가 곧 신앙임을 알게 된다.

Barth 의 인간학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 중심, 인본중심의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안에서 인간을 찾을 때 실존적인 인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인 것이다. 참 사람의 모습인 인간 실존은 바로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 하며 성서로 돌아가 그 안에서의 인간 실존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Barth 는 신앙이란 "신적인 무지에 대한 존경이며 하나님과

---

[104] Ibid., 132.

[105] 윤성범, 142.

[106] Otto Weber,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 김광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6), 149.

인간과의 질적 차이의 의식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며 모든 직관성과 개념성의 종말” 로 파악하였으며 하나님을 외경하고 그 간격을 지킬 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 보았다.[107]

현대교회와 현실의 목회자들 그리고 인간이기를 바라는 많은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인간회복 운동이라는 점이다. 인간회복운동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돌아가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요즈음 많이 고민하는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인, 예수 없는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더 고민하고, 성서로 돌아가는 운동이 교회 안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107]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28.

제 4 장. 성숙한 교인을 위한 민족장로교회의 교회 교육

1. 성서적 교육

본인이 시무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앞서 언급한대로 교회 문턱을 처음 밟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교육하여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야 할까 하는 것이다. 즉 성경을 먼저 알게 하고, 다음 믿게 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성숙한 교인을 어떻게 양육해 가느냐의 문제가 관건이 된 것이다.

한국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학교, 결혼교실을 비롯하여 성경공부를 위한 프로그램도 넘쳐나고 있다. 외국에서 들어온 벧엘 성서공부를 위시하여 크로스 웨이, 알파코스, 그리고 교회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널려져 있다. 교회가 온통 프로그램 화 되어있는, 프로그램이 교회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처음 교회에 나오는 이들에게 교회에 다니려면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교회생활을 해야 하는가 보다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이다. 프로그램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성장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있느냐, 아니면 참된 사람, 성도를 만드는데 있느냐? 그 대답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교회의 프로그램 화가 교인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하고 잘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순기능인 것처럼 오도되는 현상은 없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 성서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서의 알맹이를 접하게 하고, 성서의 맥을 짚어 나가도록 훈련시킨다면 교회들이 열을 올리며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을 쉽게 지워버릴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이냐 아니면 복음 중심이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대교회에서, 성장신드롬이 아닌 말씀, 성서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해야 하는 당위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의 이런 목회관에 따라 일차적인 과제는 처음 교회 문을 두드린 평신도들에게 성경의 핵심과 성경의 맥을 찾아 주는 일이라 확신하게 되었다. 신앙의 기초, 신앙생활의 근본은 바로 성경중심의 사람이며 성경중심의 삶과 생활이어야 함을 인식시키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성숙한 교인, 성숙한 인간은 결국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으로 살면서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임을 인식케 하자는 목적이다.

성서적 교육의 목적은,

첫째, 말씀의 핵과 맥을 잡아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고 말씀에 의거한 성숙한 인간이 되자는 것.

둘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일깨우자는 것.

셋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삶 속에 부딪치는 온갖 사실(facts)들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의 심오한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신앙인의 인생관을 확보해 주자는데 있다.

성서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나, 첫째, 인생의 목적과 참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하는 길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데 있고, 둘째, 말씀에 뿌리를 둔 가치관과 윤리관의 확립을 이루게 하자는 교육이다.

성서교육으로 인한 기대치는 첫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는 기대, 둘째, 평신도들이 삶의 나침반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며 묵상하는 생활을 하게 한다는 기대, 셋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총과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체로 말씀에 입각한 사역과 봉사를 하게 한다는 기대를 통해 교회의 제자리와 교회의 바른 모습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기대가 함께 있음을 실현되게 하는 것이다.

2. 신학적 교육

이민교회에서의 평신도 교육에 필요한 신학적 교육의 핵심은 4 단계로 4 개의 확립(4 assurance) 즉 첫째, 구원관의 확립, 둘째,교회관의 확립, 셋째, 예배관의 확립, 넷째, 선교관의 확립이 그 골자라 하겠다.

1) 구원관의 확립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정립,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영생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어려운 이민생활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2) 교회 관의 확립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평신도라는 확신, 교회는 공동체임을 깨닫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는 죄가 됨을 믿게 해야 하며,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평생 섬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이며, 교회가 나의 영적 삶의 터전이 될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사는 동안 평생 함께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닫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민교회가 가진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을 터득하여 병원으로서의 교회, 훈련소로서의 교회, 감옥으로서의 교회 등등을 이해하며 섬기며 충성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3) 예배관의 확립을 통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물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나라를 맛보게 해야 한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최대임무이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더 나가서 일상적인 생활이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일깨워야 한다. 평신도들이 예배를 경험하게 해서 예배의 은총과 예배의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4) 선교관의 확립을 통해 교회의 올바른 사명 즉 최대의 사명이 선교임을 강조하고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진기지임을 일깨워 주어 모든 평신도들이 선교의 주체가 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선교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선교의 중요성을 통해 교회의 교육적 사명과 대 사회적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고 섬김과 봉사와 협력의 생활이 계속되도록 신학적 힘을 불어 넣어야 한다.

신학적 교육의 4 단계를 통하여 4 가지의 확립이 분명해지면 성서에 입각한 올바르고 사명적인 신앙생활의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3. 신앙성장별 교육

신앙성장이라는 견지에서 신앙의 수준을 3 가지로 구분해 본다. 초신 자, 기신 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이다. 초신 자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자로서 교회생활을 시작하여 세례 받을 때까지의 단계에 있는 신자를 말하며, 기신자란 세례 받은 후의 사람들로 대개의 경우 교회의 크고 작은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자라 볼 수 있고, 평신도 지도자란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등의 항존직을 맡아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교회 안에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 이들은 신입교우반이나 평신도훈련원에서 기초적인 강의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받은 신자들을 말한다.

본인이 시무하는 교회는 얼마 동안 한국식의 교단에 가입되어있어 서리집사와 권찰 등의 직분이 있었는데 세례 받은 후의 신앙에 따라 그 직분을 맡겼다. 그러나 교회법에 따라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가 되기까지는 여러 해의 신앙 년 수가 필요하기도 하였고 교회가 정한 교회법에 따라 공동의회의 선출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미국 장로교단에 가입한 후에는 서리집사와 권사의 제도 그리고 권찰 제도는 없어지고 장로와

안수집사라는 직분만 남게 되었다. 이에 교회는 직분 자를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개설하게 되었다.

우선 일반 평신도를 위한 교육과정은;

첫째, 신입 교우 반-교회에 처음 나오는 이들이나 다른 교회는 다녔으나 구원관이나 교회관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반으로,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일과 교회의 하는 일, 사역을 안내하며,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알게 하고, 민족장로교회의 목회 관과 민족장로교회의 선교와 교육, 구제와 봉사 그리고 친교사역을 알려주며, 교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유도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의 기초 교리를 알게 하여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의 시작이 건전하도록 교육한다. 이 반은 담임목사의 환영 인사와 더불어 기독교 구원관과 교회관의 강의와 안내를 담당케 하고, 기타 안내와 강의는 평신도 훈련원을 수료한 교회의 주요 스텝들이 담당하도록 하여, 평신도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한다. 이 반은 통상 4 주간으로 편성하여 2 주간은 담임목사의 강의와 안내, 2 주간은 민족장로교회의 사역과 안내 그리고 교회의 집회와 교회의 조직과 단체, 기관 등을 안내하여 누구나 참여토록 권면한다. 특별히 4 주간의 모든 과정을 마치면 민족장로교회의 선교사역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데, 그 하나가 매월 $1 씩의 회비로 맹인들을 위한 개안수술 비를 담당하는 일불선교회로, 본 교회 등록교인은 누구나 자동적인 회원으로 전 가족이 참여하도록 하고, 남미 선교회는 가족별로 가족이 정한 월 회비를 내어 해외선교에 동참하는 선교회로 현재는 남미의 과데말라, 페루, 니카라과, 파라과이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얼마 전까지 볼리비아, 알젠티나, 칠레 등지에 선교협력을 담당하게 하는데 이 선교회도 가족단위의 자동회원이 되게 한다. 이밖에 아프리카 케냐의 고아 부모결연선교사역, 북한 동포 돕기 사역 등등의 선교사역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권면하여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과 더불어 선교하는 평신도의 사명을 일깨운다.

둘째, 문답학교를 개설하여 교회 생활을 열심히 6 개월에서 1 년 이상 한 교우들 대상으로 하는 세례주기 위한 준비와, 부모들이 세례를 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유아세례를 받기 원할 때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유아세례 준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문답학교는 4 시간을 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원관, 교회 관, 섬김의 중요성, 봉사의 참여성, 교회 사역의 주체로소의 평신도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성찬공동체에 동참함으로서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일에 대하여 강조하며, 이제는 교회의 정회원으로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일깨워주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재인식시켜 준다. 이 반은 목회자들로 담당하여 학생들과 청년들은 교육목사가, 성인은 담임목사가 담당하며, 당회 원들은 보조내지는 안내하는 일에 힘쓰게 한다.

셋째, 세례 받은 평신도들을 위한 교육으로 평신도 훈련원 1 년차에 등록하도록 하고 성서교육과 신학적 교육을 받게 한다.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집사 등의 항존 직을 맡기기 위해서는 평신도 훈련원의 2 년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공천위원회를 거쳐 공동 의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도록 한다.

넷째, 피택 함을 받은 임직 자들을 위해서는 6 주간의 임직 자 반을 개설하여 교단에서 발행된『충성된 증인이 되는 길』이란 교재의 공부를 마쳐야 한다. 미국장로교 총회교육부 한국어 자료개발실에서 발행한 『충성된 종이 되는 길(Ways to be a Faithful Servant)』은 총 5 부로 되어있는데 1 부는 이론 편으로 교회론, 에배 론, 제직론, 지도자론 등의 내용이 있고, 2 부는 교회 행정 편, 3 부는 적용 편으로 장로와 집사직의 수행을 위한 안내를, 제 4 부는 헌법 편으로 각종 규례를 설명하고, 제 5 부가 부록으로 교회 스텝으로 알아야 할 기본 자료들이 기록되어있다.

피택되어 교회의 장로와 집사가 될 평신도들은 민족장로교회의 교회요람에 편집되어있는 교회의 발자취를 숙지해야 한다. 교회의 발자취에는 교회의 창립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교회의 사역과 평신도들의 활동과 교회의 선교 적 행사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직분 자들이 교회의 역사적 전통 속에 새로운 비젼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본 자료라고 보기 때문이다. 교회의 중요 스텝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의

교회관이나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운영해 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섯째, 평신도훈련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으로는 평신도훈련원을 수료한 후에 1 년이 경과하면 10 시간의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을 마친 자들을 평신도훈련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평신도훈련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강좌를 맡길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4. 공동체를 위한 교육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공동체를 교육하기 위해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설교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총 6 차례의 설교를 통해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던 바,

1) 제자공동체의 교회(마태복음 28:19, 20)

본문에 등장하는 주제는 "모든 족속으로 더불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다. 미국연합 감리교 Richard Wilke 감독은 그의 저서『우리는 아직도 살아있는가』라는 책에서 미국 교회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다고 진단하면서 "목회자들의 사역은 분주하지만 그들은 평신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는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고 생존을 위해 양을 지키는 개를 키우는 일에 분주하다"고 비판했다.

Carl Wilson 이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미국교회의 실패원인이 "예수님께서 뜻하셨던바 효과적인 제자 육성을 하지 못했고, 대다수 교인들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또 그에게 순종하지 못하였던 점"이라 지적하며 "가르침의 훈련 없이 계속되는 교회 확장은 후일 교회를 허약하게 만든다."고 했다.

Wilke 감독은 "이제 남은 일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제자 되도록 세우는 일 뿐이다" 고 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의하면 참된 교회의 힘은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제자의 수에 있음을 알게 되고 참된 교회 상은 바로 제자 공동체로서의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성숙한 교인이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흔적을 보이는 사람임을 알게 하고,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임을 일깨워 제자 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사랑공동체의 교회(에베소 5:1, 2).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며, 기독교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임을 알게 될 때, 교회는 사랑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물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 서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할 때, 교회는 사랑공동체이고 우리는 사랑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랑하는 생을 살아야 함을 교육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성숙한 교인은 사랑을 하는 실체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춤추는 곳이 되어야 하며, 성숙한 교인이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민교회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말하는 말이 바로 사랑인데, 사랑을 명사로만 기억하고, 사랑을 동사로 행하는 일에 등한히 하거나 게을리 하는 교회가 이민교회이며 이민교회의 성도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야 함을 강조한다. 사랑은 베풀며 나눌수록 그 힘과 위력이 강하게 나타남을 일깨워 준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3) 해방공동체의 교회(출애굽기 12:37-42).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이 되어 세상에서 해방된, 죄악과 불의에서 자유 함을 얻은, 마귀나 사단의 권세에서 탈출한 해방공동체임을 일깨워 준다. 해방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과 성숙한

인간의 사명은 아직도 죄의 올무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불의의 나락에서, 부정의 울타리 안에서, 신음하는 이웃에게 자유와 해방을 나누어주는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가서 배고픔과 헐벗음과 질병에 신음하고 있는 세계 도처의 이재민과 난민들을 해방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진정한 해방의 의미를 되찾아 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선교 사역이 해방의 사역임도 알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한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 속에 숨 쉬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일깨워 민족의 해방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며, 인본의 압제에서 우리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섭리의 은총을 기억하는 민족이 되어 세계의 평화와 해방의 역사에 동참해야 할 것을 일깨운다.

성숙한 인간, 성숙한 교인은 다시는 죄와 사단의 구속과 속박에 얽매이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며, 공동체로서 서로 도와야 함을 강조한다.

4) 섬김 공동체의 교회(마태복음 20:26-28)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교인이 많거나 적거나, 교회의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교회가 섬기는 자세,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 주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이 교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교회는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며 종들의 모임이다. 이는 그리스도가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올바른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주어야 하며, 섬김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 섬김 공동체임을 인식하게 한다. 앞서 섬김의 언급도 있었으나 종의 신분이 되어 이웃,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성숙한 교인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세를 이미 벗어나 섬기려는 자세로 전환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 뿐 아니라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선교 적 차원에서의 섬김의 사역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이미 한국교회는 섬김이 자리매김하였으나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 없는 자기도취나 자기향락에 빠지는 섬김과 봉사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염려하게에 충분한 형편임을 알아야 하겠다. 교회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높이 쳐놓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즐겁게,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는 형국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섬김이 사명이고, 섬김이 우선해야 할 일임을 알아야 한다.

5) 구원공동체의 교회(로마서 10:9-15)

죄인인 인간이 의인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 비결은 오직 하나,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나의 죄 대신 나의 죄 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이에게 구원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구원함을 받아야 해방을 맛보고, 자유 함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으며 섬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영생의 은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여 교회 안에 구원받은 이들로 가득한 구원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심어준다.

이민교회들이 구원관을 심어주는 피의 복음은 역설하지 않고 번영의 복음만을 강조하다 보니 많은 교포들은 복 많이 받겠다는 욕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복음의 역할과 사명에 더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자신 있게 믿을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야 한다.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설교의 내용 중에 십자가의 보혈이나 복음의 은총을 설교하기 보다는 복 받는 일,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 잘 먹고 잘사는 일, 이름을 내고 알아주는 일 등등에 심혈을 기울이는 경우를 깊게 우려해야 할 형편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구원공동체가 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일 것이다.

6) 성찬공동체의 교회(고린도전서 11:23-24) [108]

교회는 성찬과 세례가 올바르게 집행되는 곳이어야 함을 심어주는 동시에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함께 있음을 고백하게 한다. 성도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된 형제와 자매임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통해 공동체 인식이 더 강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가 바로 성도임으로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더욱 하나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는 성찬 공동체임을 굳게 한다. 성찬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한 사함과 사함의 은총이 무엇이며 사함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성숙한 교인, 성숙한 인간은 성찬을 통해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함을 인식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

108 공동체 교육에서 언급된 6편의 설교를 통한 교육이란 이미 실시된 것으로, 정창은, *이민교회의 기독교 기초신앙을 말한다*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7), 117-154에서 간추린 내용으로 작은 팜플렛 형태로 출판된 소책자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 5 장. 교육 프로젝트

1. 연구반(Site Team)의 구성과 역할

1) 본 논문을 위한 연구반은 몇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가) 남녀별로 남자 3 인과 여자 2 인으로 구성하였으나 행정목사를 제외하고 남녀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였다.

나) 학력별 - 대졸이상 3 인과 고졸 2 인으로 구성하며 연구반원의 대표로 행정담당 부목사(Th. M)로 담당케 한다.

다) 년령별 - 60 대 1 명, 50 대 2 명, 40 대 1 명, 30 대 1 명으로 하여 교회의 전 연령층을 대표하도록 구성하였다.

라) 신급별 - 모두 세례교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장로 2 인, 권사 1 인, 안수집사 1 인 그리고 교회 행정목사로 구성하여 교회의 주요 직분 자들이 참여토록 하였다.

마) 충성도별 - 교회 출석 연수와 교회 봉사에 대한 충성도로 보았을 때 20 년 이상 출석교인 2 인, 10 년 이상 출석교인 2 인 그리고 행정목사로 하여 교회의 평신도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로 구성하였고, 그들의 실제적인 교육경험과 연구반 참여를 통해 본 논문과 목회자의 유용성에 깊이 관계있도록 구성하였다.

바) 직업별 - 자영업(small business) 2 인과 연방공무원 1 인, 일반기업 회사원 1 인 그리고 행정목사로 구성하여 이민사회의 직업적 현실감을 높이려 하였다.

2) 연구반의 조직과 모임

연구반은 총 5 명으로 다음과 같다.

	성 명	성별	학력	연령대	신급	충성도	직분	직 업	비 고
1	송 인 /	남	대졸	50 대	세례		목사	목 사	반 장
2	소 채 /	남	고졸	60 대	세례	20 년 이상	장로	자영업	
3	이 자 /	여	고졸	50 대	세례	10 년 이상	권사	자영업	
4	김 정 /	여	대졸	40 대	세례	20 년 이상	장로	연방공무원	기록담당
5	최 용 /	남	대졸	30 대	세례	10 년 이상	집사	회사원	
비고	*성명의 마지막 자는 생략하였음.								

연구반의 첫 번째 모임은 후보자의 제안으로 연구반원의 동의와 연구반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연구반원의 임무와 지침서(뉴욕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 프로그램 2.23.2009 발간)를 배부하였다. 이때 후보자는 박사과정의 재등록과 논문작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시행하였다.

1) 첫 번째 모임인 2009 년 8 월 16 일 오후 3 시에 회의실에서의 결의사항은,

가) 조직으로 위원장에 송인/ 목사(행정담당)를, 기록 담당에 김정/ 장로를 선출하였다.

나) 2009 년 10 월부터 2010 년 1 월 까지(논문 마감일) 매월 셋째 주일 오후에 연구반 모임을 갖기로 하다.

다) 다음 모임 때는 목회자 유용성과 목회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치기로 하고 설문지를 배부하다. 후보자의 기도로 마치다.

2) 두 번째 모임의 예정일인 2009 년 10 월 18 일의 모임은 후보자의 고모님의 위독으로 한국에 출타 중이었음으로 모이지 않기로 하였다.

3) 세 번째 모임은 2009 년 11 월 15 일 오후 3:10 에 당회 실에서 갖고 후보자의 참여 없이 목회자의 유용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항에 있다. 위원장의 기도로 마치다.

4) 네 번째 모임은 2009 년 12 월 20 일 오후 3 시에 회의실에서 모여 후보자로부터 논문작성의 경과보고를 듣고 기일 내에 작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마쳤다. 기록담당인 김정/ 장로의 기도로 마쳤다.

5) 마지막 연구반 모임은 2010 년 1 월 17 일 오후 2:40 에 당회 실에서 모여 논문진척 사항에 대하여 의논하고, 후보자에게 미진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위원장과 함께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마쳤다. 연구반 전원이 모든 마무리와 목사님의 건강과 전진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쳤다.

2. 후보자의 목회능력과 유용성에 대한 평가

연구반원 지침서에 있는 설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가장 우월한 것을 5 점으로, 가 장 약한 것을 1 점으로 하는 방식으로 연구반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수치를 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방법을 택하였고, 마지막 종합된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가) 신학자로써.

No	문 항	평점	평가단어	비고
1	성경연구에 대한 정규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가?	4.8	계속	
2	지속적이고 꾸준한 성경연구를 하고 있는가?	5	계속	
3	일반학문 분야,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습득을 위해 노력하는가. 예)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등	4.6	계속	
4	다양한 전망을 가지기 위해 다양한 신학자들에 대해 연구하는가.	3.8	발전	
5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는 상황과 연결시키는 일	5	계속	
6	교단의 교리에 대한 이해	4.8	계속	

7	교단의 역사적 성장에 대한 이해	4.6	계속	
8	경험과 삶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반영 할 수있는 능력	4.8	계속	
9	특정한 문제 발생 시 윤리적 요소를 찾아내고 정의내릴 수 있는 능력	4.8	계속	
10	윤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타인과 공동으로 일할 수 는 능력	4.6	계속	
11	신학적인 성장을 계속하며 목회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	5	계속	

나) 설교자로써

No	문 항	평점	평가단어	비 고
1	적절한 언어와 말투를 사용 하는가 ?	4.8	계속	
2	효과적인 전달을 하고 있는가 ?	4.8	계속	
3	적절한 시간의 배치를 하는 능력	5	계속	
4	다양한 스타일과 기대에 대한 융통성의 능력	4.6	계속	
5	효과적으로 원고를 집필할 수 있는 능력	5	계속	
6	성령에 이끌리어 성경에 근거한 말씀인가 ?	4.8	계속	
7	시대에 필요한 설교를 하는가 ?	4.4	계속	
8	교인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능력	5	계속	
9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써의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	4.6	계속	

다) 예배인도자로써

No	문 항	평점	평가단어	비 고
1	성찬과 성례의 의미와 이해 안에서의 충분한 준비와 근거	5	계속	
2	성례와 예배 경험을 통해 예배 자들을 단호히 인도할 수 있는 노련함	4.8	계속	
3	자신의 영적이고 감성적인 참여를 통해 회중들을 예배와 성례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능력	5	계속	
4	성경을 실감나게 읽을 수 있는 능력	4.6	계속	

5	회중들에게 예배와 성례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능력	4.2	계속	
6	종교음악이나 다른 예술 형태의 영역 안에서 역할 이해와 적절성의 능력	4.4	계속	
7	기독교인의 일정표 안에서의 예배를 구사하는 능력	4.8	계속	
8	특별한 행사와 상황을 위한 예배구성능력과 의식을 인도하고 창조하는 능력	4.0	계속	
9	예배의식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하는가	4.8	계속	

라) 예언자적인 대리인

No	문 항	평점	평가단어	비 고
1	부도덕한 사건에 관한 식견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참여와 헌신	4.8	계속	
2	사회 부정으로 인한 희생자를 향한 공감과 민감성	4.4	계속	
3	사회 부조리를 분석하는 기술과 사회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능력	5	계속	
4	구체적인 전략 안에서 요구되는 변화에 관한 직관적 통찰을 해석하는 능력	4.6	계속	
5	변화를 위한 전략의 윤리적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	4.4	계속	
6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위험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발성	4.6	계속	
7	사회적 변화를 찾기 위한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고 모임의 주인의식을 창출, 구성하는 능력	4.6	계속	
8	자신의 문화적 편견을 인지하고, 자신의 참여와 행동의 세계화된 의미를 깨닫는 자가	4.8	계속	

마) 지도자로써

No	문 항	평점	평가단어	비 고
1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겠다는 의지와 자세	4.8	계속	
2	생각과 제안의 창의적인 내용	5	계속	
3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능력	5	계속	
4	적절한 시기에 주도권을 선점하는 능력과 의지	4,8	계속	

5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지도권을 위임하는 능력	4.6	계속	
6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능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실천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는 능력	4.4	계속	
7	최선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4.6	계속	
8	다른 사람들의 주도권을 따르고 자원을 공급해 주는 능력	4.4	계속	
9	잘 수행된 업무에 감사를 표현하는 의지	4.8	계속	
10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	4.8	계속	
11	효과적으로 조직적인 평가를 제시하는 능력	4.8	계속	

바) 종교 교육가로써

No	문 항	평점	평가단어	비 고
1	인간사의 연속성을 통해 배움의 과정을 이해하고 발전의 각 단계에서 배움에 대해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	4.8	계속	
2	아동기와 청년기의 교육과정의 이해	5	계속	
3	성인기 교육과정의 이해	5	계속	
4	아동기와 청년기에 습득한 용어들을 종교적인 개념과 도전으로 전환시키는 능력	4.8	계속	
5	성인기에 습득한 용어들을 종교적인 개념과 도전으로 전환시키는 능력	4.8	계속	
6	개인별, 조직별, 지역사회별 필요를 규명하고 적절한 교육 전략과 반응을 개발시키는 능력	4.8	계속	
7	다른 교육 지도자를 참여시키고 훈련 감독하는 능력	5	계속	
8	주제별 사안을 파악하고 준비시키는 능력	5	계속	
9	주제별 사안의 명확성과 조직성	4.8	계속	
10	집단의 원동력을 이해함으로서 영성 된 소리 교육법을 사용하는 능력	3.8	발전	
11	다른 사람들과의 열린 대화	4.8	계속	

사) 상담가로서

No	문　　　　항	평점	평가단어	비　고
1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자유로운 사람	5	계속	
2	자아를 받아들이고 성장시키는 사람	4.6	계속	
3	접근하거나 다가가기 쉬운 사람	4.8	계속	
4	말하기와 대화하기에 숙련된 사람	4.8	계속	
5	완성을 위한 치료와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사람	4.6	계속	
6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고 인내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4.8	계속	
7	다른 사람들과의 내적 여정을 통해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	4.8	계속	
8	자신과 다른 사람들, 자신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화해와 조정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4.0	계속	
9	상담가로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점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4.2	계속	

아) 목회자로써

No	문　　　　항	평점	평가단어	비　고
1	모임 안에서 성찬과 성례를 따뜻하게 집행하는 사람	5	계속	
2	모든 환자들을 방문하는 사람	5	계속	
3	가족을 잃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사람	5	계속	
4	모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용기를 주고 관계를 맺는 사람	4.8	계속	
5	모임 구성원들을 오래 동안 양육하고 재능을 키워주는 사람	4.8	계속	
6	비활동적인 구성원들과의 접촉점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4.0	계속	
7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는 사람	4.8	계속	

자) 영적 지도자로써

No	문　　　　항	평점	평가단어	비　고
1	그들이 속한 종교단체의 전통적인 배경과 영적인 훈련에 정통한 사람	4.4	계속	

2	영적인 훈련을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	4.8	계속	
3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목회상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여정에 집중하는 사람	4.6	계속	
4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영적 인도를 할 수 있는 사람	4.8	계속	
5	영적인 수양회, 모임, 예배 인도를 효과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4.8	계속	
6	그들의 전통에 걸 맞는 영적인 실천에 정규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사람	4.6	계속	
7	다른 시대와 전통의 영적인 훈련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4.6	계속	

차) 초교파주의자(Ecumenics)로써

No	문 항	평점	평가단어	비 고
1	다른 신앙 전통에 대한 지식과 이해	4.8	계속	
2	교파적, 신앙 고백적이거나 종교적인 맥락 안에서 대화와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	4.6	계속	
3	교파 간, 신앙 간의 예배, 교육, 활동을 위한 구조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능력	4.2	계속	
4	다른 모임과 단체의 필요, 이해, 조직과 연관 지어 모임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4.8	계속	

카) 전도자로써

No	문 항	평점	평가단어	비 고
1	복음에 대한 증거를 산출할 수 있는 전체 모임으로서 중심인 메시지와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8	계속	
2	적대감이 생기더라도 전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헌신을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4.6	계속	
3	신앙공동체의 미래와 메시지의 통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4.8	계속	
4	변절을 하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사람	4.8	계속	

파) 행정가로써

No	문 항	평점	평가단어	비 고
1	문제나 업무를 잘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5	계속	
2	목적을 현실적으로 잘 실행 할 수 있는 능력	4.8	계속	
3	세워 놓은 목적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4.8	계속	
4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이루어진 일들을 평사할 수 있는 능력	4.8	계속	
5	결정이 필요한 일들을 위해 타인과 함께 일 할 수 있는 능력	4.6	계속	
6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물질의 정체성을 파악하여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4.6	계속	
7	그룹의 진행이나 활동력을 잘 이해하고 함께 이할 수 있는 능력	4.8	계속	
8	작고 세밀한 일을 하면서 전체 선교사명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4.8	계속	
9	세밀한 부분들을 꼼꼼하고 치밀하게 처리하는 능력	4.8	계속	
10	효과적이며 조직적인 능력	4.8	계속	
11	효과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4.6	계속	

타) 전문성으로써

No	문 항	평점	평가단어	비 고
1	문장을 잘 써서 의사표시나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능력	4.8	계속	
2	시간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	4.6	계속	
3	본인의 능력 한계를 파악하여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4.6	계속	
4	목회의 전문성을 표현 할 수 있는 능력	5	계속	
5	업무수행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4,8	계속	
6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있고 정직하며 개인적입니까?	4.8	계속	
7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며 대화를 잘하십니까?	4.6	계속	
8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건설적으로 대처하십니까?	4.8	계속	
9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잘 구분하십니까?	5	계속	

연구반의 목회자(후보자)유용성에 대한 평점과 함께 나타난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가) 우수 탁월한 분야

ㄱ. 교회 조직과 행정에 탁월하고 활동적이다.

ㄴ. 프로그램의 조직, 작성, 실천에 탁월하다.

ㄷ. 교육적 비젼과 교수능력, 교육정책에 대한 판단능력이 뛰어나다.

ㄹ. 신문의 컬럼, 회보 등의 구성과 글 쓰는 능력이 뛰어나다.

ㅁ. 목사직에 대한사명에 투철하고 최선을 다하는 진지성과 진실성이 뛰어나다.

ㅂ. 운동, 작문 등, 기타 활동에 적극적이다.

나) 갈고 다듬어야 할 분야

ㄱ. 목사로써의 보이는 권위를 세우는 일(인간적인 호감은 좋으나 권위의식의 필요)

다) 개발해야 할 분야

ㄱ. 설교에 있어서 더 쉽고 재미있게 표현을 구사하는 능력.

ㄴ. 이세를 위한 구체적인 목회전략의 필요.

ㄷ. 교인과의 관계에서 너무 신앙적이고 복음적이어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

라) 기피하거나 완화해야 할 분야

ㄱ. 교회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강조하다보니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함.

ㄴ. 교회의 목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과 사회봉사 분야를 좀 완화하기를.

ㄷ. 시작한 일을 끝까지 추진토록 격려하고 감독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이상의 보고서를 접한 후보자는 목회자로서의 목회방향과 심혈을 기울이는 성인교육의 목적이 더 분명해졌다는 판단과 함께 목회자가 걸어야 할 많은 분야에 대한

자기반성과 더욱 기도하며 목회의 정도를 가야 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목회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이 가장 절실하며, 맡기어주신 목양 터인 교회가 제자리를 잃지 않도록 항상 돌보고 지키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절실해 졌다. 연구반이 제시한 목회자의 개발해야 할 사항들을 위한 노력의 경주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도 깨닫게 되었다. 특별히 이민교회의 내일을 책임져야 할 2 세교육과 2 세 목회에 대한 비젼을 키워 나가야 할 때가 시급함을 알아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연구반원들은 후보생의 유용성과 목회능력에 대한 후한 평점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부족한 점으로 지목된 점들을 보다 철저한 개선을 위해 더욱 분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사가 가진 권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교회가 지녀온 전통적인 목사 상에 대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영성과 목사라는 자리에 대한 권위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섬김과 사랑과 봉사라는 결과로 나타 날 때 진정한 권위가 생겨나야 한다는 목회 관을 버리고 싶지는 않다. 목사직이라는 것이 법에 따른 정년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것 보다는 주어진 생의 전체가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의도를 전하며 증거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볼 때 아직도 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제를 사명으로 알고 더욱 정진해 달라는 연구반원들의 사랑이라고 믿고 싶다.

3. 교육과정의 작성

Donald E. Miller 는 그의 책 『Story and Context』에서 “신앙공동체의 교육과정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이며, 포괄성 및 사회정의와 관련된 사랑의 선교이고 지역적인 상황들 속에서의 세계적인 인식에 대한 추구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소명에 대한 인식이고, 해방과 희망을 향한 행동이다” 했

다.[109] 이 정의에 따르면 성숙한 교인이란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의 선교를 실천하고 소명에 따른 사명을 다하며 희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하겠다.

교육과정(Curriculum)이란 말은 순환경주로(circle race track)를 의미하는 라틴 어 *currere* 에서 나왔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을 위해 선택된 경험, 지식 또는 신념을 제공해 주는 수단이다. 참여자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신앙공동체의 전통, 확신 및 습관을 성찰하고 그러한 것들에 위탁하며 반응한다. [110]

D. Campbell Wyckoff 는 커리큘럼은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과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육사역을 통하여 사용하는 주위 깊게 고안된 의사전달 통로이다" 라고 정의했다. [111]

앞서의 Wyckoff 는 교육과정의 기본요소를 목적, 범위, 맥락, 학습과제 및 조직원칙으로 구분하였다. 목적(Purpose)은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목표를 가리키며, 범위(Scope)는 탐구되어야 할 지식과 경험의 영역을 가리킨다. 교육의 맥락(Context)은 그 안에서 학습과제와 절차가 제시되고 있는 관계의 총체를 가리키며, 학습과제(Learning tasks)는 교수와 학습을 위한 활동 및 정차를 가리킨다. 조직원칙은(Organization principle)은 목적, 범위, 맥락 및 학습과제를 결합시켜주는 원칙을 가리킨다.[112]

이상에서 커리큘럼에 대한 간단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평신도훈련원은 이런 교육과정의 이론을 배경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가) 예배하는 한 시간으로 만족하려는 교인들에게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예배, 의식, 설교를 통하여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며 이런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사명과 책임에 대하여 의식화 시키는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

[109] Donald E. Miller, *기독교 교육개론,* 고용수 장종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303.

[110] Ibid., 304.

[111] 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66.

[112] Donald E. Miller, 305.

나) 모든 교인들이 평신도로써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식과 함께 그 능력의 개발을 위해 배워야 하며 훈련 받아야 함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의식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다) 성숙한 신앙은 말씀중심이 되도록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성서적 바탕 위에두도록 교회학교의 각 부서와 각 기관의 월례회를 통하여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라) 기독교 교회 역사상 성숙한 신앙으로 사회와 역사 속에서 살아간 믿음의 선각자들을 소개하며 인간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살면서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섬기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이 되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마) 앞서 4 장에서 언급한 구원관의 확립, 교회관의 확립, 예배관의 확립 그리고 선교관의 확립을 통한 성숙한 교인이 되는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4. 시행방향

연구반과 목회자 그리고 당회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며, 교인들이 성숙한 교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회의 할 일이며 사명임을 같이 인식하고 전 교인, 평신도들에게 이러한 성서적인, 신학적인, 사회적인 의식을 심어주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일은 짧은 시간 내에 작은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계속 기도해 나가며 전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이루어지리라 믿게 되었다. 이는 목회자의 목회 관과도 일치한다는 확신을 연구반은 물론 평신도 모두에게 공감하는 일이 되도록 적극 권유하기로 하였다.

평신도 훈련원을 1 회적으로 끝내지 말고 2 년을 한 기로 하고 한 기를 4 학기제로 하며, 4 학기를 마치면 수료식과 함께 수료증을 주기로 하였다.

수료증을 받은 평신도들에게 교회의 각종 직분을 맡을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며, 수료 후 1 년이 지나면 10 시간의 계속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에게도 평신도훈련원의 강사자격을 주기로 하였다.

평신도훈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성취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목회자의 투철한 성서적, 신학적 목회 관과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교회의 성장지향주의가 아니라 교회의 성숙주의와 성숙한 교인, 성숙한 인간을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제 몸같이 아끼고 사랑으로 목양한다는 목회관이 있어야 한다.

장로교회의 구조상 결정권이 있는 당회가 어떻게 하든 교회의 부흥이라는 성장주의에 빠지지 않고, 성숙지향주의의 교회 관에 따라 성숙한 교인의 양성이라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절대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신도훈련원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연구반은 뜻을 같이하는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적극 동참하였다. 먼저는 후보자의 목회 관에 따라 교육목사로 하여금 평신도훈련원의 기본 골격 즉 교육과정, 내규사항, 행정적 지원, 학사일정 등을 초안케 하고 연구반과 당회가 이의 수정보완작업을 더하고 당회는 실천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행정지원을 아까지 않았다.

5. 시행전략

1) 해마다 교회의 목회방향에 따른 주제를 선정하는데 1988 년부터 1990 년까지 3 년간의 주제를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 참 사람" 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전교회와 전 교인들이 주제에 따라 참 사람 즉 성숙한 교인으로 육성되기를 목표로 한다.

가) 1988 년 5 월 말까지 연구반의 기초조사와 당회의 동의를 얻는 일을 마친다.

나) 1988 년 7 월 첫 주일 교회창립 기념주일 까지 1 개월 동안 교회의 각 부서, 각 기관장의 연속회의를 소집하여 주제를 인식시키고 이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평신도 훈련원의 설립 필요성을 목회방침으로 강조한다.

다) 교회의 당회로 하여금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회 예산의 편성을 통해 평신도훈련원의 개원을 뒷받침하게 한다.

2) 6 월부터 교회창립주일이 될 때까지 한 달간 이민교회의 사명과 책이, 교회의 특별한 역할, 이에 따른 평신도의 중요성과 사명 적 책임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하며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교를 통하여, 교회학교의 특별 성경공부를 통하여 집중 교육한다.

가)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교회의 창립을 맞으면서 민족장로교회에 대한 회고와 전망, 분석과 평가 그리고 새로운 제안들을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나) 매 주일 오전 예배 시작 전에 장년성경공부 시간을 통하여 장년부 교인들에게, 교회학교의 학생회와 청년부에게는 그들의 집회시간을 통하여 교회 관과 교회의 사명에 대한 특별한 실천방안을 강구하게 한다.

다) 교회 기관지인 [임마누엘]과 교회의 주보를 이용하여 평신도훈련원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누구나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며 권고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라)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평신도훈련원의 모형을 의식적으로 시도하여 동기를 유발시킨다.

마) 7 월 중으로 평신도훈련원의 내규, 커리큘럼 등의 작성을 준비하여 연구반은 이를 연구 검토하게 한다.

바) 9 월 첫 주일부터 개강할 수 있도록 교육적, 행정적, 재정적 제반 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사) 개강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전 교인들에게 공지하고 교인들 스스로가 준비하며 동참하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유도하며 알린다.

3) 전 교인의 참여를 권유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훈련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계몽하고 신앙적 훈련과 성숙한 교인이 되는 길임을 재차 강조한다.

가) 7 월 말까지 연구반과 교육 목사로 하여금 교과 목표, 교과과정, 내규, 학사일정 등을 확정짓고 교인들에 발표한다.

나) 8 월 첫 주간에 평신도훈련원 등록 신청서를 가정통신을 통해 안내서와 함께 전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 7 월과 8 월 중에 있는 구역예배를 이용하여 평신도훈련원의 개강과 개강목적에 대하여 주지시키고 전 교인이 참여하도록 권면한다.(이를 위해 구역장과 도우미를 위한 특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라) 교회의 각 부서와 각 기관과 선교회들이 자체 사업으로 평신도훈련원에 등록하도록 결의하게 한다.

마) 8 월 마지막 주간을 시범교육 주간으로 정하고 연구반원, 당회원, 각 기관장, 각 부서장, 각 선교회장이 참여하는 평신도훈련원 개원을 위한 시범 교실을 운영한다.

바) 매년 9 월 첫 주일에 1 학기를 개강하여 10 주간의 교육을 한 학기로 하며, 봄 학기는 4 월에 시작하여 10 주간을 한학기로 한다. 학기마다 2 회의 특강은 10 주간 교육에 포함하지 않는 전교인 대상의 특강으로 한다.

제 6 장. 평신도훈련원 개설

성숙한 교인, 성숙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평신도훈련원의 개원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이민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주는 어려움은 아래와 같다.

1) 대부분의 교인들이 생업을 위해 small business 에 종사하고 있었다. 주인의 입장이든 아니면 종업원의 입장이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2) 하루의 근무시간이 12 시간 이상인 경우도 허다했다. 이민생활에서 분주하다는 이유는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경우든 따라 다니는 원인이 되었다.

3) 일하는 시간의 과다로 언제나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강의시간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4) 생활전선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일이, 또는 새롭게 배우며 공부한다는 일이 사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5) 이민교회가 평신도를 위한 학교를 운영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매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에 교인들은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6)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동일한 목회 관을 가진 강사진을 구한다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같은 신학대학 출신을 위주로 강사진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7) 교재를 만들어 수강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라 모든 문서와 자료를 한글 타이프라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8)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시간이 준비에 소요되었다. 강사의 교섭부터 교재의 작성과 제작을 위한 타이프까지 모두를 목회자가 담당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9) 이민교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귀한 강좌를 개설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시작하는 귀한 훈련원을 개 교회만을 위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아쉽 다는 생각으로 인근교회에 공문을 보내고 동참하기를 바랐지마는 반응은 냉담한 것이었다.

10) 평신도훈련원은 막대한 재정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교회의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시작하기도, 계속하기도 어려운 형편임을 알게 되었다.

1. 준비

1) 교육적 준비

평신도훈련원은 양육과 가르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성인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신앙과 지식, 율법과 은총, 과거와 현재, 이상과 행동 등의 성취목적을 정해야 하며, 가르침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삶과 직결되는 이민 상황에서의 구체적 양육이 어디에 가능한지를 염두에 둔 목적을 지향하게 되었다.

가) 교교과목의 선정

평신도훈련원의 기본 교과과목은 성경 그 자체이다. 성경이 주요 교재이고 기타과목이나 강좌들은 성경을 보좌하는 입장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성경 66 권을 성서 신학적 입장에서 다루는 일이 기본이고, 앞서 언급한 구원관의 확립, 교회관의 확립, 예배관의 확립 그리고 선교관의 확립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어떻게 성숙한 교인으로 양육 받아서 하나님 사역의 주체로서의 평신도 신앙생활을 하게하며, 어떻게 세상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집중 교육한다.

구원론을 말하면 죄론도 등장하게 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도 다루어야 하며 구속의 은총과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어 소망 중에 사는 평신도의 삶을 일깨워야 한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강조하고 설교가 십자가의 복 음을 전해야 하는

것임을 올바로 인식시키는 강좌가 절실하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의 공허함을 일깨워야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이민의 삶을 슬기롭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교회가 구원공동체임을 강조해야 한다. 구원의 은총은 십자가 보혈임을 확신하게 하고 피의 복음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설교의 중심 내용이 번영의 복음,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보혈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이민교회와 교인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교회관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목회자는 없을 것이다. 교회가 구멍가게 차리듯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현실부터, 교회가 어떤 단체로 전락된듯한 양태에 이르기 까지, 교회가 제 멋대로 들락거리는 곳이라는 잘못된 생각,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곳으로 착각하는 인식, 교회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공존하자는 안일한 사고, 무엇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인은 그 지체라는 신앙적 고백이 절대 부족한 형편임을 직시하고 올바른 교회 관,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섬기도록 허락하신 나의 삶의 터전이라는 고백적 교회 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며 교회를 위한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인생의 선한 모습은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직장이 함께 해야 함을 알게 한다.

이민 교회 뿐 아니라 현대의 교회들이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점점 희미해지거나 변질되거나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이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특히 경배와 찬양, 열린 예배 등, 예배가 하나의 문화적 Content 로, 일종의 Trend 화 해가는 경향에 대한 바른 예배 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가 무엇인지,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의 주관자로, 예배 순서는 무슨 의미인지, 헌금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헌금의 방법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의미를 확실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예배가 살아나야 신앙은 확실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예배가 생활이 되는 평신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선교관의 확립은 이민교회의 사명과 직결된다. 이민생활 자체가 하나의 선교적 사명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선교기지라는 선교관, 교인은 누구나 선교사라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선교에 동참하는 자세 등을 일깨운다. 본인이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전교인이 참여하는 일불선교회(One dollar Mission), 전 가정이 참여하는 남미 선교회(South America Mission) 뿐 아니라, 교회의 각 선교회가 매월 일정한 선교 비를 책정하여 담당하는 개척선교회(New Church Mission), 방송을 통한 선교(Korean Broadcasting of Washington D.C), 미국 이웃 사랑회(Good Neighbor USA)를 통한 북한선교, 아프리카의 케냐에 잇는 고아 학생을 돕는 선교, 은퇴한 여교역자를 돕는 선교 등 많은 선교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바, 평신도훈련원을 수료하면 누구나 선교사역의 주체로 사역하도록 교육한다. 교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우치도록 한다.

나) 강사의 선정

이민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전공의 목회자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신학과 목회에 정통한 목회자를 발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평신도훈련원은 일단 담임목사의 목회관과 같은 신학적 배경을 가진 강사를 일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주로 장로교 계통의 목회자들이고, 담임목사가 추천하는 목회자들을 강사로 선정하게 되었다. 특히 유념해야 할 일은 목회자가 이민생활의 경험이 있느냐의 문제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가끔 이민생활의 경험이 없는 목회자들이 이민교회의 강단에 서서 이민교회와 맞지 않는 설교와 강의 때문에 때로는 이민 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다.

2) 행정적 준비

가) 운영위원회의 구성

평신도훈련원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당회 직속 기관으로 하기로 하고 평신도훈련원 원장은 담임목사가 맡기로 하고, 교무위원장은 교육목사가, 총무위원장은 재정위원장이, 간사는 교회의 사무원이 맡기로 결정하다.

평신도훈련원 운영위원회는 당회 원과 집사회원으로 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진 평신도 3 인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원 1 달 전부터 시간표 작성, 강의실 선정과 준비, 교재발간, 강사교섭, 재정확보, 사무 분담 등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 한다. 개원을 앞두고 매주 마다 최종점검을 실시하여 개원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를 힘써야 한다.

2) 홍보전략

가) 개원 2 개월 전에 평신도훈련원 개원안내 포스터를 교회당의 주요 자리에 부착하여 미리 평신도들이 알고 있게 하다.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도 좋다.

나) 개원 1 개월 전과 보름 전에 주요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게재한다.

다) 개원 1 개월 전부터 교회의 주보에 연속으로 3 주간 게재하고 각종 예배의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개원을 알린다.

라) 개원 두 주일 전부터 입학원서를 교회 주보에 끼워 전교인에게 안내한다.

마) 특별히 평신도훈련원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교인이 있으면 교육목사 또는 담임목사가 심방하여 권면한다.

바) 같은 지역 내의 다른 교회에게도 참여를 권하는 공문을 1 개월 전에 발송한다.

2. 개원

평신도훈련원의 개원은 정해진 개강 일에 등록으로부터 시작하고 입학 예배를 드림으로 개원한다. 입학예배는 교무위원장의 사회, 원장인 담임목사의 설교, 총무위원장의 기도로 드린다. 입학 예배 시에는 평신도훈련원의 내규를 안내하는 순서와 입학 선서를 하는 시간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평신도훈련원은 매주 금 저녁 7:30-9:30 까지 강의한다. 매 주 1 회, 총 2 시간을 단위로 4 월 첫 주부터 10 주간을 한학기로, 9 월부터 10 주간을 2 학기로 하고, 매 학기마다 2 회에 걸친 특강을 실시하나 이 때는 교회의 어떤 평신도들도 참여할 수 있게 Open 한다.

평신도훈련원은 교회 성장을 바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인의 성숙, 인간의 성숙이 목표임으로 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고, 보다 진실 된 자세로 강의를 수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철저하게 출석을 점검하게 하고 출석이 자기 성실의 좌표를 테스트 하는 기회로 삼을 뿐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본보기로 삼도록 하고, 매 학기 말에는 출석에 대한 시상을 다른 시상보다 우선으로 한다.

평신도훈련원의 수강생들은 때로 저녁식사를 거르게 될지도 모를 경우가 종종 있음을 인지하고 간단한 먹 거리를 준비하거나 간식이나 커피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으며, 가능하면 이 일도 수강생들이 자치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섬김의 모델로 삼을 만하다.

평신도훈련원의 강의 실은 출입이 자유로운 곳, 보다 안락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 커피나 간식을 쉽게 챙길 수 있는 곳 등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평신도훈련을 통하여 교회의 성장이 물량적 성장지향이 아니라 교인 하나하나가 성숙한 신앙을 통하여 개인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라며, 개인을 통한 가정과 그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몸담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을 통하여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회 성장은 더딜 수 있으나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결과물로 바라는 것이다.

이민사회에, 아니 이민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인간들이 많아짐으로 세상과 교회가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선하고,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그려가는 꿈은 목회자의 전유물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란다.

3. 모집

평신도 훈련원의 1 기생은 13 명 내외로 한다. 이는 한 개 반의 최적한 인원이라는 이유에서다. 13 명을 정원으로 하나 만약의 경우 한두 명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평신도훈련원은 4 학기, 2 년제로 하지만 매학기 마다 신입생을 모집하게 됨으로 매년 13 내지 15 명의 졸업생을 계속하여 배출하게 된다. 교회 안에 평신도훈련원에서 훈련을 받는 평신도가 매학기 마다 26 명에서 30 명이 있게 된다. 이는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고 또 작은 사역이 아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 놀라운 사역이다. 매 학기마다 30 명 내외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 학기가 끝나면 그 30 명 가운데 적어도 10% 정도는 변화된 모습을 직접 직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경험이다. 매 학기 마다 10%의 교인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는 증거이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사이다. 이것이 훈련원의 목적이고, 이것이 성숙의 징조라고 믿는다. 이 믿음이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역은 놀라운 사역인 것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매 학기마다 수강생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대책의 하나로는 전교인의 훈련생화를 시도하는 일이다. 출석하는 교인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등록 수강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평신도들을 깨워 누구나 주체가 되도록 훈련하는 일에 자원하여 동참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다. 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평신도들이다. 그들은 그들이 교회의 주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 평신도훈련원의 졸업생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만 한다면 누구나 일어나 전진하려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강을 마친 졸업생들이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아직 교회에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 또 교회생활을 하였지만 낙심과 실망으로 중단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작업을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 때 철저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평신도훈련원의 운영위원회에서는 계속되는 모집인원에 대한 보다 치밀하게 계획된 대처 방안을 가지고 훈련원이 계속 진행하도록 힘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4. 실행

가) 본교회의 평신도훈련원 1 기, 1 학기와 2 학기의 강의 시간표와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3]

날 자	요일	1 교시 7:40-8:40	2 교시 8:50-9:50	강 사 명	비 고
4,23	금	교 회 론		정창은 목사	본 교회
4.30	금	구 약 개 론		김상학 목사	한인장로교회
5. 7	금	교 회 사		정창은 목사	
5.14	금	신 약 개 론(1)		허중로 목사	제일장로교회
5,21	금	전 도 대 회			
5.22	토	특 강		고현봉 목사	장로교 총회장. 부산영락교회
5.28	금	공 관 복 음 연 구		우수명 목사	성민장로교회
6. 4	금	모 세 5 경 연 구		김상학 목사	
6.11	금	신 흥 종 교 연 구		정창은 목사	
6.18	금	신 학 개 론(2)		허중호 목사	
6.25	금	정 신 건 강		장치본 목사	봉사센타 총무
7. 2	금	칼 빈 신 학		정창은 목사.	

113 이 교재는 한글 타이프라이터로 직접 타자하여 발간한 것이다. 부록 1,2.

본교회의 평신도 훈련원의 1 기는 1984 년 4 월 23 일(금)부터 7 월 2 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40 부터 9:50 까지 있었다. 교재는 강의 내용을 요약한 총 80 면의 소책자이다.

평신도훈련원 1 기의 2 학기의 강의시간표와 강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의 2 학기는 1982 년 9,10 일(금)부터 11 월 12 일(금)까지 오후 8:00-10:00 까지 강의하였다. 교재는 강의 내용을 요약한 총 48 면이다.[114]

날 자	요일	1 교시 7:40-8:40	2 교시 8:50-9:50	강 사 명	비 고
9.10	금	한국교회사		정창은 목사	본 교회
9.17	금	기독교 교육		김경숙박사	Community col.
9.24	금	바울서신(1)		정창은 목사	
10.1	금	전도란?		조영훈 목사	연합감리교회
10.8	금	선지서(1)		장세일목사	한인장로교회
10.15	토	신학개론		정창은목사	
10.22	금	바울서신(2)		정창은 목사	
10.29	금	장로교교회정치		이병규 목사	미주장신대학장
11.5	금	선지서(2)		장세일목사	
11.12	금	교회청지기론		정창은 목사	

참고로 1985 년 도 평신도훈련원 2 학기(9.13-12.20)의 시간표를 첨부한다. 이 때는 수업시간을 45 분으로 축소하고 일일 세 시간으로 수업하였다. [115]

---

[114] 부록 3,4.

[115] 1985 년도의 본 교회 평신도훈련원은 본인이 회장으로 봉사하던 볼티모어 기독교 연합회의 요청으로 볼티모어성서대학이라는 이름으로 1 년간 공동 운영되었음으로 강사는 연합회 회원 목사님들 중심으로 짜여 졌음을 밝힌다.

일 자	요일	1 교시(7;00-7;45)	2 교시(7:50-8:35)	3 교시(8:45-9:30	비 고
9.13	금	개 강 예 배	특 강	특 강	
9.20	금	모 세 5 경	모 세 5 경	모 세 5 경	김경락 목사
9.27	금	공 관 복 음	공 관 복 음	공 관 복 음	윤재봉 목사
10.4	금	사 도 행 전	사 도 행 전	사 도 행 전	손다윗 목사
10.11	금	시 편	시 편	시 편	정창은 목사
10.18	금	역사서(역상-왕하)	역 사 서 2	역 사 서 2	한희택 목사
10.25	금	특 강	특 강	특 강	
11.1	금	요 한 복 음	요 한 복 음	요 한 복 음	박상근 목사
11.8	금	모 세 5 경	모 세 5 경	모 세 5 경	김경락 목사
11.15	금	역사서(여-삼하)	역 사 서 1	역 사 서 1	장세일 목사
11.22	금	공 관 복 음	공 관 복 음	공 관 복 음	윤제봉 목사
11.29	금	요 한 복 음	요 한 복 음	요 한 복 음	박상근 목사
12.6	금	역 사 서 2	역 사 서 2	역 사 서 2	한희택 목사
12.13	금	역 사 서 1	역 사 서 1	역 사 서 1	장세일 목사
12.20	금	사 도 행 전	사 도 행 전	사 도 행 전	손다윗 목사

나) 평신도훈련원 내규

ㄱ. 본원의 한기는 2 년으로 하며 한기는 4 학기제이며 봄(4 월)과 가을(9 월)에 개강한다.

ㄴ. 한 기를 수료하면 본원 소정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ㄷ. 교회의 제직은 본원을 수료한자로 하며 교회 봉사자는 전원 수료하게 한다.

ㄹ. 수업시간의 2/3 를 수강하지 못하면 그 학기는 무효로 한다.

ㅁ. 지각을 3 회하면 1 회 결석으로 간주한다.

ㅂ. 본원의 제반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ㅅ. 본원의 수강생은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ㅇ. 본원의 미비 된 사항은 추후 보완한다.

5. 효과분석

평신도훈련원에서 수강하고 평신도들에게 이민생활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와 교회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를 분석평가 한다.

1) 1 학기의 교육훈련 성과에 대한 훈련원 자체의 평가를 연구반과 담당 강사들과의 연속회의를 통하여 점검 실시한다.

2)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의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 학기 공부를 통하여 느낀 것을 발표한다.

3) 이민생활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함의 신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사례를 모아본다.

4) 모아진 사례들을 간증주일을 정하여 전체 교인들 앞에서 간증토록 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 평신도훈련원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드러나게 한다.

5) 평신도훈련원과 교회의 이름으로 이민사회에서 봉사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실행을 위해 훈련원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 시행하도록 한다.

6) 지역사회나 한인사회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6. 평가

1) 연구반, 당회 원, 각 부서의 장과 각 기관장, 각 선교회의 장들이 교회가 설정한 주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주제에 대한 확고부동한 자신감을 가지고 주제를 실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2) 전 교인, 평신도들이 주제를 이해하고 주제에 맞추어 신앙생활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3) 평신도훈련원과 신앙생활의연관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4) 평신도들에게 평신도 훈련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계몽을 철저히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5) 주일 설교, 성경공부, 저녁예배 시간들을 통한 의식화와 인식변화 작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6) 전 교회가 평신도훈련원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스텝들(연구반, 당회원, 각 기관장등)얼마나 진지한 준비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7) 교회의 기관지와 주보, 신문광고 등을 통한 평신도훈련원에 대한 홍보활동은 대내외적으로 적절하게 실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8) 평신도훈련원의 교육과정과 내영 그리고 내규 등의 검토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9) 교육적, 행정적, 재정적, 제반 개원에 따른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10)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이 평신도들에게 성서적, 신학적, 사회적, 문화적 이해 뿐 아니라 세상에서 성숙한 교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11) 평신도훈련원의 과목과 교재와 강사진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12) 교회 안의 각 부서와 각 기관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적극성을 띠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들의 기대하는 바가 어느 정도의 성취 욕구를 주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13) 평신도훈련원의 모든 것이 예정된 시간과 강사, 교육과정과 교육목표가 잘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14) 평신도훈련원에서 수강하는 훈련원 생들이 교육을 통하여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15) 평신도 훈련원 생들이 자발적인 봉사계획과 실천적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16) 교회의 사명과 평신도의 사명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자각이 어떠한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평가한다.

17) 평신도훈련원 생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변화된 양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8) 이상의 평가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가정 방문을 통한 개별 인터뷰 그리고 강의 후에 실시하는 평가서를 기준으로 백분율로 산출해 본다.

가) 평신도훈련원 평가서 sample 1

평신도훈련원 1 기를 마치면서 실시한 평가서 결과 보고서(1984 년도)

1. 가장 유익했다고 생각되는 강의는 ?

답의 예) 가) 정신건강문제

나) 신흥종교와 공관복음

다) 공관복음과 정신건강

라) 다 좋았습니다.

2. 더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는 강의는?

답의 예) 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

나)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더 많이 해주시면.

다) 정신건강

3. 바라고 싶은 강의와 신설되었으면 하는 강의는?

답의 예) 가) 성경의 올바른 해석방법과 말씀 안에서 연결방법.

나) 교인으로서 현 생활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다) 미국생활에 필요한 강의가 있었으면.

바) 이민생활에서의 불만을 성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4. 평신도훈련원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나 고쳐야 할 점은?

답의 예) 가) 강의 내용에 비해 시간이 짧음.

나) 시간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다) 주입식 교육보다는 문제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라) 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람.

마) 시간을 한 시간 더 연장할 수 있었으면.

바) 이민생활과 결부시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강의를.

5. 한 학기를 마친 소감은?

답의 예) 가) 모든 강의 시가에 다 참석하지 못함을 매우 섭섭하게 생각.

나) 대체로 좋았다. 교재를 만들어 배부한 것은 아주 좋았다.

다) 꼭 필요하고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라)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많은 말씀들을 들었음을 감사하고 이 훈련원에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

나) 평신도훈련원 평가서 sample 2.

평신도훈련원 4 기를 마치면서 실시한 평가서(1987 년도)

수거된 10 명의 평가서를 중심으로,

1. 시간 1 주의 3 시간이 적당하다. 알맞다. 짧다. 길다. 그 이유는?

알맞다(6), 적당하다(2), 짧다(2). 짧은 이유는 두 번했으면 좋겠고 내용의 숙지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2. 수업분위기는 진지하다, 보통이다, 산만하다. 그 이유는?

진지하다(6), 보통이다(4). 교회에 나오기는 여러 해 되었으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3. 수업 내용은? 어렵다, 적당하다, 너무 쉽고 수준이 낮다, 모르겠다. 그 이유는?

어렵다(1). 성경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는데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

보통이다(9). 강사 목사님이 어려운 부분도 쉽게 가리켜 주시기 때문.

4. 수업 분량은? 너무 많다, 적당하다, 너무 적다, 모르겠다, 그 이유는?

너무 많다(6). 구체적 해설이 불충분하다. 토론의 시간이 부족하다. 예습복습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대충대충 넘어가기 쉽다.

적당하다(4).

5. 강사에 대하여? 지금으로 족하다, 부족하다, 외래강사도 필요하다, 과목분담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

지금으로 족하다(6).

외래강사도 필요하다(3). 전도 학 강의가 좋았다.

과목분담이 필요하다(1).

6. 강의 내용은 ? 너무 어렵다, 적당하다, 너무 쉽게 한다. 그 이유는?

적당하다(9).

너무 쉽게 한다(1). 수업분량이 많아 충분한 강의가 되지 못하고 겉만 보며 간다.

7. 평신도훈련원을 공부를 통하여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ㄱ. 모세 5 경등 막연히 읽던 성경이었음을 시인하며 새로운 체계적인 공부를 했다.

ㄴ.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것이 곧 나에게 적용됨을 인식.

ㄷ. 구약 책들의 특징과 구조를 정연하게 알게 되었음.

ㄹ. 성경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었고 성경읽기가 쉬워졌으며, 나도 모르게 성경에 빠지게 되었다.

ㅁ.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고 outline 을 갖게 되었다.

ㅂ. 교회에 나가 주일 날 예배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ㅅ. 미래 2 세들을 위한 신앙적인 설계와 자세를 바로 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성경을 배우는 중에 학문으로 만이 아닌 신앙의 힘이 점점 자라는 것을 느낌.

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케 하는 것임을 알았다.

ㅊ. 평신도훈련원에서 공부하기 전에는 성경이 무엇인지 몰랐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해석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았으나 훈련원 공부를 끝나고 내가 배운 것이 다 생각나지 않지만 신앙심이 조금씩 보탬이 되는 것 같다.

8. 평신도훈련원의 공부를 통하여 나의 교회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ㄱ. 교회생활이 적극적인 자세로 발전하려고 하며 일상생활에서 배운 것과 비교하며 살려고 노력한다.

ㄴ. 일상생활에서 사물을 보는 시각(관점)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다.

ㄷ. 바쁜 생활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계기를 얻음.

ㄹ. 성경에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의 진리를 수업을 통하여 얻었다.

ㅁ. 바쁘고 피곤해도 성수주일은 꼭 해야겠다는 것.

ㅂ. 믿음이 곧 행함, 나의 힘으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기 전에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행위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마음이 가벼워 짐.

ㅅ. 나의 일상생활이 나도 모르게 성경의 말씀과 연관을 지우게 되고 교회 생활에 대한 의무감이 생긴다.

ㅇ. 신앙생활이 바로 정립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는 자극을 받았음.

ㅈ. 교회생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을 보는 것 같다.

9.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훈련원을 계속되어야 하며, 전 교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ㄱ. 성경에 대하여 나 자신도 너무 몰랐던 것을 시인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알아야 함을 느낍니다.

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은 성도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본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모토로 삼아야 하겠음으로 절대 필요하다.

ㄷ.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면 저절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에 심취하게 된다. 꼭 필요하다.

ㄹ.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일주일의 하루 저녁은 신앙 성장을 위해 갖는 좋은 시간이다. 깨닫게 됨에 행함이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따르기에 절대 찬성이다.

ㅁ. 성경을 알고 교회에 출석해야 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이다.

ㅂ. 평신도훈련원에서 얻는 지식과 성경에 대한 이해는 모든 교인들이 좀 더 교회생활에 충실하고 또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다. 모든 교우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다.

ㅅ. 말씀을 잘 배워 힘 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필요하다.

ㅇ. 신앙심이 두터워 지며 교인들이 성경말씀으로 무장하면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한다.

ㅈ. 성경을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근본이라 생각한다. 전 교인이 성경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음으로 교인 전원이 참석할 수 있다면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ㅊ. 계속되어야 한다. 평신도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좋은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

제 7 장.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

이민교회의 당면한 사명 적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의 대답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명확한 대답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숙한 교인은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이다. 이민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인간을 양육하고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의 과제가 이 논문의 목적이었다.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무엇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그 최우선과제를 위해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참 인간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찾아보았다. 철학적인 인간, 심리학적인 인간, 신학적인 인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인지를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고, 그리스도가 보여준 인간의 모습을 닮아가는 길이 인간되는 길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교회 사역의 주체 세력인 평신도들에게 먼저 성경말씀을 일깨워 주고, 말씀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인간상을 회복하여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참 사람의 양성이 시급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 사역의 주체인 평신도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주체가 되고,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을 삼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평신도들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보다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 바로 평신도 훈련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평신도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은 교인들이 보다 더 성숙한 교인으로, 아니 보다 더 성숙한 인간으로 바뀌어 나가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성숙한 교인이란 목사에게 충성하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교인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이 가진 가치관의 변화로 삶의 방향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다. 이를 수치와 비율로 정확하게 산출해 내지 못함이 있으나 이는 목회자의 축적된 경험의 산물임을 밝힐 수밖에 없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분석해 보면:

첫째, 평신도들은 성경말씀 배우기에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신도들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귀하고 소중하게 듣기를 원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제한 된 장소에서, 제한 된 용어로 전달되는 설교보다는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강의. 그리고 자유스러운 자기 생각의 발표를 통하여 다른 교인들의 생각도 듣고 싶은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평신도들은 목회자의 염려처럼 생계에 바쁘고 피곤한 것이 사실이나 성경을 배우는 일에 자신의 정력과 시간을 투자할 용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평신도 수강생들은 하루에 12 시간 이상씩 생활전선에 시달리다가도 평신도훈련원에 참석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흥분 속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평신도훈련원을 통한 또 다른 효과는 수강생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교회의 친교적 기능과 봉사적 기능이 살아나는 실천하는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다. 서로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공동체의식이 싹트는 것이다.

넷째, 목회자와 강의를 통해 자주 접촉하게 됨으로 목회자가 걱정하는 양떼 돌봄의 소홀이 나타나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매주 주일을 제외한 하루를 정하고 만나는 일은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이해와 협력과 창의력을 만들어 가는 기회가 주어진다.

다섯째, 목회자의 강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목회철학의 이해와 목회자의 비젼과 목회방침을 공유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섯째, 평신도 수강생들이 점차 교회 안으로 발을 깊이 들여 놓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교회의 일들이 자신의 일들처럼 받아들이고, 교회의 제 3 자적 자세에서 주인의식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일곱째, 평신도훈련원을 통해 교회사역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적극성을 띠는 결 과를 가져왔다. 선교사역의 동참 율이 현저하게 달라지고 봉사의 장도 넓어졌다.

여덟째, 평신도훈련원에서 수강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업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도 이 시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되어 자녀들의 학습능력이 개선되었다.

아홉째, 평신도훈련원의 수강을 통하여 가정 제단을 쌓아야 하는 필요성의 인식이 자동적으로 생겨나 가정제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라 제단을 쌓는 가정이 많아져 교회는 일 년 분의 가정예배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해 주는 일이 생겼다.

열째, 평신도훈련원의 수강을 통하여 성경읽기가 생활화되기 시작하여 교회는 성경통독 표를 만들어 제공해 주겠다. 예를 들어 성경 100 독 켐페인 등을 벌이게 되었다.

열한째, 평신도훈련원을 통하여 교회의 주인의식이 생기고 변화된 것의 뚜렷한 것은 십일조 봉헌하는 가정의 증가이다.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배우면서 자연히 헌금정신과 의무를 깨닫게 되었고 실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열두째, 평신훈련원의 수강을 통하여 전도해야 한다는 의식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회에서 타 교회에 나가는 교인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 강조점이 그들에게 자극이 되고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라는 인식이 생겨, 아직 교회에 발을 들여 놓지 않은 이웃을 찾아 나서는 일이다.

열세째, 평신도훈련원의 강좌와 강의시간, 그리고 강사 선정은 전적으로 해당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교회마다 사정은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지만

구체적 상황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는 본 교회 평신도 훈련원의 강좌와 강의 시간표와 강사소개에 대한 일면만 소개한 이유이다.

열넷째, 평신도훈련원의 수강료를 부과하느냐의 문제는 많은 어려움을 수반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수강료를 받느냐의 의견도 만만치 않은 타당성과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적정한 수강료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의 발견이다. 수강생들의 마음자세를 가다듬어 주고, 수강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며, 교회의 모든 재정은 결국 교인들의 신앙고백적인 믿음과 자발적인 봉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열다섯째, 평신도훈련원의 강의 날자와 강의 시간도 개 교회의 사정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1993 년에는 가정주부들을 중심한 오전반 성서대학반도 실시한 바 있다. 교회 형편에 따라 강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열여섯째, 평신도훈련원의 수료 때는 수료증을 예쁘게 만들어 주고 의미 있는 수료예배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인들 가운데는 그의 일평생 무엇을 수료해 본 경험도 없고 수료증을 받아 본 일도 없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수료증을 매우 소중하게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여 간직하는 것을 보았다.

열일곱째, 가능하면 평신도훈련원의 훈련기간 중에는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평신도훈련원에 집중되도록 하여 평신도들이 훈련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다음 기에 참여하도록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열여덟째, 수강생들의 의식 속에 성숙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바른 의미와 보람을 일깨우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강사들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일도 중요함을 알았다.

열아홉째, 강사의 선정은 신학적, 목회적 배경이 유사한 강사를, 지역적으로 교회와 가까운 지역에 계시는 강사를. 학문적 배경이 든든한 강사를 선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강의를 통하여 신학적인 문제가 야기되거나, 목회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무번째, 평신도훈련원은 교회의 단일사역이 아니라 종합사역이 되도록 함이 필요하고 교회성장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목회의 장기적 전략사역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평신도훈련원을 통한 효과를 분석해 봄으로 이 논문의 연구과제의 결과로 말하고자 한다.

제 8 장. 결론

인간에게 계속하여 따라 다니는 물음이 있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계속되고 있다. M. Scheler 는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인간의 유형이 5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신을 추구하는 종교적 인간, 둘째는 이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유하는 인간, 세 번째는 실증과학을 근거로 하는 공작인, 넷째는 이성을 부정하고 의지를 삶의 본질로 보는 디오니소스적 인간, 그리고 다섯째로 현존재로서의 인간의 초월을 주장하는 초인 등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 자기 성찰로 얻어지는 인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적 의미의 인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의 머리까지 자라감으로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다. 철학적, 심리학적, 여러 관점의 인간을 찾을 수 있으나 성숙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Paul Tillich 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은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성숙한 교인의 양성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이 스테드먼은 그의 책 『생명력 있는 교회의 비결』의 마지막 결론부분에서 "최상의 것, 지고의 것,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더 추구하시는 그것은 지금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닮은 남녀들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그가 원하시는 것은 흰옷을 입은 성자들도 아니요, 유능한 성직자들도 아니요, 종교전문가들도 아닙니다. 그가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 내가 책임 있고 순종하며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일입니다" 고 했다. 그렇다. 이제 교회의 새로운 사역의 초점은 성숙한 교인, 성숙한 인간을 만들어 내는 일에 전념하여야 한다. 교회가 교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간 그대로의 인간으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바른 사명을 다한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대교회가 가진 병폐가 무엇인가를 바로 인식하고, 교회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시급한 것이다.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 그대로는 교회의 본래적 사명을 다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교회가 병들어 가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아우성은 성장신드롬에 묻혀 그 소리는 시들해 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이민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물량적 성장을 비젼으로 삼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본래의 사명에 성실한 자세를 만들어 나갈까 하는 목회자의 고민은 목회자로 하여금, 시간이 걸려도 성숙한 교인의 양성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확신이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듯 한 사람을 성숙한 인간으로 양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참 사람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며 참 인간이 될 때 한인간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결과는 정말 아름다운 목회가 아닐 수 없다. 한 성숙한 교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사역의 중심이 되어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섬기는 신앙, 사명적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목회자의 자존심과 같은 것이 되었다.

이제 이민교회들의 첫 번째 사명이 사회복지 사명도 아니고, 친교적 기능을 다하는 사명도 아니고, 건물구입이 최우선 사역이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많아지는 사역도 아니고, 교회이름을 드높이고, 목회자의 명성을 쌓아가는 일도 아니고, 선교지가 많다고 내세우고 자랑하자는 시역도 아니고, 성숙한 교인을 만들어 성숙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들을 양산하여 그들이 선교에 앞장서고, 그들이 교회를 앞장서 섬기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선두에 서게 하는

일이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본인이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들을 다 표현하지 못했다는 애틋함이 있으나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나의 짧지 않은 이민목회 경험을 통하여 얻은 이민교회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이 바로 평신도 훈련이라는 절대 절명의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끝

Appendices

제 1 기

평 신 도 훈 련 원

(1 학 기 교 재)

기간 : 1982.4.23(FRI) - 1982.7.2(FRI) P.M. 7:30
장소 : 민 족 장 로 교 회 당

교 과 과 목 및 강 사

(강의일자순)

1. 교 회 론 (2 시간) .... 정 창 은목사 (본교회목사. M. Div.)
2. 구 약 개 론 (2 시간) .... 김 상 학목사(한인장로교회목사. Th. M.)
3. 교 회 사 (2 시간) .... 정 창 은목사
4. 신 약 개 론(4 시간) .... 허 중 호목사(메릴렌드 제일장로교회목사.Th. M.)
5. 특 강 .... 고 현 봉목사(장로교총회장,부산영락교회목사, D. D.)
6. 공관복음연구 (2 시간) .... 우 수 명 목사(성민장로교회목사, M. Div.)
7. 모 세 오 경 연 구 (2 시간() .... 김 상 학 목사
8. 신 흥 종 교 연 구 (2 시간) .... 정 창 은 목사
9. 정 신 건 강 (2 시간) .... 장 치 본 목사(봉사센타총무, D. Mim.)
10. 칼 빈 신 학 (2 시간) .... 정 창 은 목사

강 의 시 간 표

날 자	요 일	1 교 시(7:40- 8:40) 2 교 시(8:50-9:50)
4.23	금	교 회 론
4.30	금	구 약 개 론
5.7	금	교 회 사
5.14	금	신 약 개 론(1)
5.21	금	" 전 도 대 화 "
5.22	토	(오전 10:30-12:00) 특 강
5.28	금	공 관 복 음 연 구
6.4	금	모 세 오 경 언 구
6.11	금	신 흥 종 교 연 구
6.18	금	신 약 개 론(2)
6.25	금	정 신 건 강
7.2	금	칼 빈 신 학

* 2 학기는 9.10-11.12 까지, 강좌와 교수는 추후 발표합니다.

제 1 기

평 신 도 훈 련 원

(2학기 교 재)

기간 : 1982.9.10(Fri) - 1982.11.12(Fri) P.M.8:00-10:00

장소 : 민 족 장 로 교 회 당

민 족 장 로 교 회

Glen Burnie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교 과 과 목 과 강 사

(강의 일자순)

1. 한 국 교 회 사 .... 정 창 은 목 사(본교회)
2. 기 독 교 교 육 .... 김 경 숙 박 사(〃, 〃, 〃,)
3. 바 울 서 신 .... 정 창 은 목 사
4. 전 도 란 ? .... 조 영 훈 목 사 (연합감리교회)
5. 선 지 서 .... 장 세 일 목 사(한인장로교회)
6. 신 학 개 론 .... 정 창 은 목 사
7. 교 회 정 치 .... 이 병 규 목 사(미주장신대학장)
8. 교 회 청 지 기 론 .... 정 창 은 목 사

강 의 시 간 표

날자	요일	1교시 (8:00-9:00)	2교시 (9:00-10:00)
9.10	금	한 국 교 회 사	
9.17	〃	기 독 교 교 육	
9.24	〃	바 울 서 신 (1)	
10.1	〃	전 도 란 ?	
10.8	〃	선 지 서 (1)	
10.15	〃	신 학 개 론	
10.22	〃	바 울 서 신 (2)	
10.29	〃	교 회 정 치(장로교)	
11.5	〃	선 지 서 (2)	
11.12	〃	교 회 청 지 기 론	

평신도훈련원 제2기는 83년 4월에 다시 개강됩니다.

평신도훈련원은 일년에 두차례 봄 가을에 개강하며 1학기는 20시간 10주동안 계속합니다.

목 차

평 신 도 훈 련 원 내 규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1. 한기는 2 학기로하고 봄과 가을에 개원한다.
2. 한기를 수료하면 본원 소정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3. 전제직은 본원수료자로 하며 교회 봉사자는 전원 수료하게 한다.
4. 수업시간의 3 분의 2를 수강치 못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없다.
5. 지각 3 회면 1 회 결석으로 한다.
6. 훈련원의 제반 결정은 고역자에 따른다.
7. 미비된 사항은 추후 결정한다.

본 교회의 평신도훈련원은 앞으로 매년 2 학기씩 개원할 것이며 본 교회 뿐아니라 모두에게 개방하여 말씀을 배우고 더 잘믿으며 충성된 봉사자를 양성하는데 있고 실력있는 제직의 양성이 본원의 제일 중요성이다. 그러나 본교회 교인은 누구나 한번은 수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전통성, 신앙의 순수성, 생활의 성실성은 전적으로 교회교육에 의하여 이룩되어야 한다.

민 족 장 로 교 회

평 신 도 훈 련 원 제 Ⅳ 기 생 모 집

우리가 섬기는 민 족 제 단이 생기면서 처음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며 바른 신앙을 갖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위해서는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 믿어 훈련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깨닫고 문을 연것이 「평신도훈련원」이었읍니다. Ⅲ기까지 지내오는 동안 여기에서 공부하고 훈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 봉사하고 있음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요 또한 우리교회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번에제Ⅳ기부터는 2년제로하여 1년차에서 성경의 66권을 차례로 공부하며 평신도에게 꼭 필요한 기초신학을 교수할 예정이며, 2년차에는 성경을 보다 깊이 연구할 목적으로 CROSS WAY 성경연구라는 특수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4기의 일학기에는 성경의 구약 전체를 공부하며 한시간의 신학특강이 준비되었으며 수강생은 교재를 받아 차례로 공부하게 됨으로 체계적인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번학기는 15명 선착순으로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는 장소문제 때문입니다.

⊙개강일 : 1987. 9. 9일 오후8 : 00 (매주 수요일에 공부함)

⊙종강일 : 1987. 12. 16일 (15주간)

⊙강의장소 : 사회봉사관 (☎760~0956, 6 Platzer lane)

⊙등록비 : 1인당 $ 50, 한가족2인 $ 90, 3인 $ 110.

⊙강 사 : 본교회 교역자와 M.Div학위 이상의 목회자

⊙등록마감 : 87. 9. 9일까지 (단, 선착순마감함)

⊙문 의 : 정목사님께, 차편없으신 분은 제공합니다.

⊙입학원서를 기록하셔서 정목사님께 기일엄수 제출바랍니다.

※특전 ~미주장로회신학대학의 평신도과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노회의 장로고시면제의 혜택을 받으며 본교회의 학습과 세례문답의 공부를 면제합니다.

1987. 8. 30

입 학 원 서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	
신 급			
직 업		전화	

본인은 평신도훈련원 제 Ⅳ 기 생으로 입학코저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1987. . .

우원인 ㊞

평 신 도 훈 련 원 귀 중

……………………………………… 자 르 는 선 ……………

영 수 증

No.

성 명

일 금 $

상기 금액을 평신도훈련원 제 Ⅳ 기 1학기 등록금으로 정히 영수함.

1987. . . ㊞

평신도훈련원 87 가을학기 평가서

1. 시 간 ①1주의 3시간 적당하다. ②알맞다. ③짧다. ④길다. 〈이유는?

2. 수업분위기
   ①진지하다. ②보통이다. ③산만하다. 〈그 이유는?

3. 수업내용
   ①어렵다. ②보통이다. ③너무 쉽고 수준이 낮다. ④모르겠다 〈그 이유는?

4. 수업분량
   ①너무 많다. ②적당하다. ③너무 적다. ④모르겠다 〈 이유는?

5. 강사에 대하여
   ①지금으로 족하다. ②부족하다. ③외래강사도 필요하다. ④과목분담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6. 강의내용
   ①너무 어렵다. ②적당하다. ③너무 쉽게한다. 〈이유는?

7. 평신도훈련원 공부를 통하여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8. 평신도훈련원 공부를 통하여 나의 교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9. 우리 교회에서 이 평신도훈련원은 계속되어야 하며 전 교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0. 교회에게 또는 평신도훈련원에 대한 바람직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

(모자라면 뒷면에)

88 년도 가을학기 각부 강의 시간표

청 년 회 (매 수요일8~10:00)

날 짜	과 목	강 사
9/ 7	Orientation	정 창은목사
14	성 경 개 관	〃
21	모세 5경 ①	〃
28	모세 5경 ②	〃
10/5	역 사 서 ①	안 응섭목사
12	역 사 서 ②	〃
19	역 사 서 ③	〃
26	특 강①	강 사
11/2	성 문 서 ①	안 응섭목사
9	성 문 서 ②	〃
16	대 선지서①	강 사
23	대 선지서②	〃
30	대 선지서③	〃
12/7	소 선지서①	정 창은목사
14	소 선지서②	〃
21	특 강②	강 사

여호수아 상록회 (매 목요일2~4:00)

날 짜	과 목	강 사
9/22	영어, 성경	
29	〃	
10/ 6	〃	
13	영어, 미국사회	
20	〃	
27	〃	
11/ 3	영어 , 성경	
10	〃	
17	〃	
24	영어, 건강문제	
12/ 1	〃	
8	영어 , 성경	
15	〃	
22	〃	

마르다 전도회 (매 토요일8~10:00)

날 짜	과 목	강 사
10/1	성경개관	정 창은목사
8	4복음서①	안 응섭목사
15	4복음서②	〃
22	사도행전	〃
29	초대교회사	정 창은목사
11/5	옥중서신①	안 응섭목사
12	옥중서신②	안 응섭목사
19	목회서신	정 창은목사
26	중세교회사	〃
12/3	보통서신①	〃
10	보통서신②	〃
17	한국교회사	정 창은목사

디모데 형제회

날 짜	과
9/22	제1과
29	제2과 성
10/ 6	옥
13	목
20	보
27	하나님이
11/ 3	특 강
10	가정생활
17	제4과
24	제5과
12/ 1	제6과
8	제7과
15	제8과
22	제9과
1/ 5	제10과
12	제11과
19	제12과
26	제13과
2/ 2	제14과
9	제15과

1.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2. 한시간도 결석하지 말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성을 다한다.
3. 시간 시간 배운 말씀을 생각하며 생활하며 그 말씀이 나의 생활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자
4. 부서의 다른 회원에게 공부한 것을 알게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토록 인도하자
5. 정교재인 성경에 충실하고 강의교재는 하나의 길잡이로 받아들여 성실한 자세로 공부하자
6. 같은 반의 동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수하시는 목사님과 강사님을 위해 꼭 기도하자
7. 내가 교회의 어느 구석에서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것인가를 찾아내어 실천하자
8.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잃지말고 최선을 경주하여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선봉이 되자.

볼티모어평신도훈련원

성서 대학 졸업 예배

1990.12.16 7:30 사회: 배현수목사

졸업생입장 ------------------------- 졸업생일동

묵 도 ------------------------- 다 같 이

기 원 ------------------------- 사 회 자

찬 송 --------- 399 장 ------ 다 같 이

기 도 ------------------------- 김명순교우

말씀 봉독 -----빌립보서 4:8-9 ------ 사 회 자

특 송 ------------------------- 재학생일동

설 교 ----" 배운 것을 행하라"---- 정창은목사

기 도 ------------------------- "

성서대소개 ------------------------- 사 회 자

수료증수여 ------------------------- 정창은목사

상품 수여 ------------------------- "

기 도 ------------------------- 정창은목사

찬 송 --------- 235 장 ------- 다 같 이

교 회 소 식 ------------------------- 사 회 자

축 도 ------------------------- 정창은목사

교 회 소 식

1. 볼티모어 성서대학 1991학년도 봄학기는 내년 1월에 개강하게 될 것입니다.

2. 본 교회의 제직들과 성가대원 그리고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3. 내년부터는 성서대학에 입학을 임명제로 하여 당회의 추천으로 하게 됩니다.

학교 설립 목적

본 대학은 교회의 중추가 되는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시켜 성서에 입각한 바른 신앙과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통한 바른 청지기상을 정립하여 바른 신앙으로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사명을 다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우리 2세들을 위한 기독교교육 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강좌, 성가대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는 강좌등을 개설하여 평신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수춧돌이 되게 하며 진리수호에 앞상서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읍니다.

BIBLIOGRAPHY

1. 외국서적

Calvin, John. *Commentaries on The Epistlesof Paul, Galatians and Ephesian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9.

________. *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Genesi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9.

Cassirer, Ernest. *인간이란 무엇인가*. 최명관 역. 서울: 창, 2008.

Clinebell, Howard. *전인건강.* 이종헌 오성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________. *현대성장상담요법.* 이종헌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0.

Hall, Douglas John. *The Steward.*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Hannah, Barbara. *Jung-His Life and Work*. Boston: Shambhala, 1991.

Harris, Maria.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0.

Heidegger, Martin. *The Philosophy of Mind.* Translated by Fredrick A. Olason.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87.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7.

Kaufmann, Walter. *니이체, 하이데거 정신의 발견 2*. 김평옥 역. 서울: 학일출판사, 1986.

________. *프로이드 아들러 융 정신의학의 발견 3*. 김평옥 역. 서울: 학일출판사, 1986.

Kraemer, Hendrick. *평신도와 신학.* 유동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Marias, Julian. *History of Philosophy.* New York: Dover Publication, Inc., 1967.

Miller, Donald E. *기독교교육개론.* 고용수, 장종철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7.

Moore, Robert L.and Daniel J. Meckel, eds. *Jung and Christianity in Dialogue.* New York: Paulist press, 1990.

Nelson, C. Ellis. *신앙의 터전*. 박원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Pauck. Wilhelm & Marion. *Paul Tillich- His life and thought.* San Francisco: Harpers & Row. 1989.

Pink, A. W. *산상수훈 상*. 지상우 역. 서울: 엠마오. 1996.

Stedman, Ray C. *생명력 있는 교회의 비결*. 서울: 보이스사, 1983.

Storig, Hans Joachim. *세계철학사 하권*. 임석진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8.

Thielicke, Helmut. *Modern Faith and Thought.* Translated by W. Broniley and B. William. Grand Rapids, Michigan: 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Tillich, Paul. *흔들리는 터전*. 김천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Weber, Otto.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 김광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6.

Wright, Elliot. *8복과 믿음의 위인들 77인*. 김영배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2.

2. 한국서적

강영계 (편저). *종교와 인간*. 서울: 종로서적, 1988.

고용수 외 4인. *기독교교육개론(상)*.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0.

김병우. *존재와 상황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연구*. 서울: 한길사, 1983.

김수진. *평신도 운동과 교회성장*.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판국, 1989.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6.

박봉수. *교회의 성인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변재창. *작은 목자훈련*. 서울: 두란노서원, 1987.

윤성범. *칼 바르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이대희. *인간이란 무엇인가*. 대구: 정림사, 2009.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임경수. *심리학과 신학에서 본 인간이해*. 서울: 학지사, 2009.

정소영. *상담과 기독교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0.

정창은. *이민교회의 기독교 기초신앙을 말한다.*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7.

황승룡. *조직신학(상).*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9.

기독교대백과사전. 7권. 서울: 기독교 교문사, 1986.

3. 논문

심홍수. *평신도사역자 훈련학교를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미간행 목회신학박사학위 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8.

이양제. *교회의 평신도 지도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1999.